

## 야외음악당 철거 계획, 재건축 논의 없어

시설과 “예산 마련 되는데로 철거 하겠다”

학생들 무대설치 추가비용 등 문화행사 축소 우려

대학본부가 야외음악당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야외음악당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야외음악당은 단과대학 학생회와 동아리 등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사용하고 있다. 야외음악당에서 행사를 열 경우에는 무대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 비용을 줄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과(과장 최승화)에서는 야외음악당이 지난 1980년 시설돼 노후 됐으며 사용 횟수도 적다는 이유로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

양영우 시설과 기획팀장은 “야외음악당의 훼손 정도가 심해 학내 흥

물로 남아 있다”며 “사용횟수에 비해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예산이 마련 되는데로 야외음악당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했다.

야외음악당 철거에 대해 안은지(관광경영학과 3) ‘여기부터’ 총어 학생회 부회장은 “올해 총어학생회 축제를 야외음악당에서 진행했다”며 “행사 진행을 위해 무대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돼 편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외 음악당이 철거된다면 무대설치 비용과 준비에 번거로움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학내에는 야외음악당을 제외하고 야외에서 행사를 진행 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따라서 야외음악당이 철

거 된다면 행사마다 무대를 따로 설치해야 해 문화 행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외음악당의 철거가 아닌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진짜 총학생회에서 추진한 ‘야외음악당 재건축’ 논의는 표류 중인 상황이다.

양소영(사회학과 3)씨는 “타 대학은 노천극장, 야외음악당 등에서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위해 야외음악당 재건축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고광표(경영학과 4) 총학생회장은 “야외음악당 재건축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업”이라며 “제3도서관도 꾸준히 요구한 끝에 신설된 것처럼 야외음악당 재건축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주연 기자



“저를 뽑아주세요” 학생회 선거운동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가운데 총학생회에 임후보한 <SO아라·원족>과 <신세계>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아라캠퍼스 정문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저를 뽑아주세요” 학생회 선거운동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가운데 총학생회에 임후보한 <SO아라·원족>과 <신세계>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아라캠퍼스 정문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 학교에 1급 발암물질 석면 그대로 있어

제주대 건물 석면제거 하위대학 현황서 4위 기록

학교측, 예산 없어 석면 교체보다 손상 부분만 보수

대부분 학교건물에서 석면(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천장텍스가 손상됐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를 방치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파손돼 공기 중으로 비산될 경우 호흡기 유입이 되면 폐포에 염증과 암을 유발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이 0.1%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했다.

현재까지 제주대는 6개동(본관, 생명자원과학대학 1·2호관, 사범대학 1·2호관, 교양강의동)에서 석면 조사를 마친 상태다. 나머지 104동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제주대 건축물 석면조사 총괄 보고서에 따르면 총 1만6229㎡면적의 석면이 검출됐다. 본관에서는 5822㎡, 교양강의동에서는 2465㎡, 생명자원과학대학 1호관에서는 2528㎡, 2호관에서는 3121㎡, 사범대학 1호관에서는 777㎡, 2호관에서는 1513㎡면적의 석면이 검출됐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6동의 모든 건물이 △물리적 손상 정도 △잡재적 손상 가능성 △유지·보수 빈도와 형태 △인체 노출 가능성 등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위험성이 낮다는 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국정감사에 제출

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건물 석면 제거 하위대학 현황에서 제주대가 4위에 뽐냈다. 이는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됐지만 이에 대한 제거 작업이 미약했다는 의미이다.

손상된 천장텍스도 방치하는 등 석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9년 이전에 지은 15개의 건물에서 손상된 천장텍스가 발견됐다. 경상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출입이 가장 많은 중앙현관에 절반 이상 파손된 천장텍스 타일이 수개월간 방치됐으나 현재는 교체된 상태다.

양나영(무역학과 1)씨는 “학생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학교 측에선 이런 위험성에 대해 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상된 석면에 대한 보수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은범 시설과 실무관은 “예전의 텍스타일은 현재 텍스타일하고 규격이 달라 틀 전체를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며 “틀 전체를 바꾸려면



공과대학 1호관 천장텍스가 파손돼 있다. 학내 많은 건물에서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다.

머칠이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원스톱 시설 도우미에 민원을 하면 보수할 수 있는 곳에 한해 손상된 부분을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서윤 기자

동계방학 영어 우수학생 필리핀대학 파견 신청 안내

국제교류본부(본부장 강영훈 행정학과 교수)는 11월 13일까지 동계방학 필리핀대학 파견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자격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4이상 1학년 학부생이며 동일프로

그램 미파견, 학적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경력과 국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 희망자는 지원신청서, 공인영어성적증명서(경력관리 프로그램 필수 등록), 여권 사본을 해당 학과로 제출하면 된다. 강수빈 기자

## 사라캠퍼스 학생식당, 생활협동조합 유치 불투명

기존 입찰 방식 유지할수도

사라캠퍼스 학생식당에 생활협동조합(이사장 고유희 학생처장 수석 교육과 교수)을 유치하려던 교육대학의 노력이 난관에 봉착했다.

10월 28일 사라캠퍼스 학생식당 운영에 대한 생협 내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재정적 문제로 사라캠퍼스 학생식당의 생협 직영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황우화 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은 “현재 백두관 식당의 경우도 올해 9월까지 7255만2000원의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라캠퍼스 학생식당 운영까지 겸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약 5000만원 적자를 감안해야 한다”며 “생협이 사라캠퍼스 학생식당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생협의 직영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외부업체 위탁경영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경북대는 생협이 학생식당을 직접 운영하지만 특식에 한해서는 외부 업체에 맡겨 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특정한 한 업체에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돼 이를 사라캠퍼스에 적

용한다면 교육부 감사 대상이 된다. 또 사라캠퍼스 학생식당의 계약이 1월 16일부로 만료돼 이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생협 유치가 끝이 아니라 식당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찬우 기자

## ‘박물관 속 전통과학 찾기’ 7일 열려

14일도 무료로 행사 진행

박물관(관장 허남춘 국어국문학과 교수)은 11월 7일 ‘박물관 속 전통과학 찾기’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유물에 숨겨진 전통 과학을 알아보고 유물을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초등학교생 총 30명이 참여해 오후 4시부터 박물관 2층 시청각실에서 박물관에 있는 전시유물을 주제로 과학적인 원리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강은실 학예연구사는 “무한상상실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관람객들이 체험하며 휴식을 즐기도록 운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14일에도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60명까지 모집을 받는다.

문의 = 박물관 학예실 (☎754-2243) 김보라 기자

#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합니다

풍력발전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2015학년도 전기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 집 인 원 |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일반전형)                                                                                                         |
|---------|------------------------------------------------------------------------------------------------------------------------------------|
| 모 집 학 과 | • 석사과정 : 풍력공학부(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제어시스템전공, 풍력해양·토목공학전공) 3개 전공<br>• 박사과정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
| 지 원 자 격 | • 전공제한 없음(공학계열·인문사회계열 등)<br>• TOEIC 600점에 상응하는 영어능력                                                                                |
| 원 서 접 수 | • 2014. 11. 18(화) 10:00 ~ 11. 21(금) 17:00<br>•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br>•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http://www.uwayapply.com) |
| 필 기 고 사 | • 2014. 12. 12(금) 10:00 ~                                                                                                          |

| 면 접 고 사 | • 2014. 12. 12(금) 15:00 ~                                                                                                                                                                                                      |
|---------|--------------------------------------------------------------------------------------------------------------------------------------------------------------------------------------------------------------------------------|
| 특 전     | • 석·박사 월 70만원 장학금 지원<br>•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외 우수대학 학점교류 지원금 월 100만원 지급 (유럽 : 알보그대학(덴마크), 델프트공대(네덜란드), 러프버리대학(영국) 일본 : 아시카가 공대 등)<br>•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내외 인턴십 지원금 내규에 따라 지급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네덜란드 ECN, 독일 Lahmeyer, 영국 Lomax 등) |
| 졸업 후 진로 | • 한국남부발전, 제주에너지공사,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한국전력 등 국내 대기업 및 국가 공기업 (풍력공학부 석·박사 졸업생 취업 자료에 근거함)                                                                                                                                       |
| 선 발 방 법 | • 본 과정은 필기고사(전공영어, 각 전공별 전공과목)와 면접고사로 합격자 선발<br>• 자세한 사항은 풍력공학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
| 문 의 처   |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064)754-3991<br>• 대학원 풍력공학부 사무실 (064)754-4400<br>• 홈페이지 : 풍력특성화대학원(http://gwe.jejunu.ac.kr)                                                                                                                     |

## 사설

## 기본이 부족한 한국사회, 대학은 예외일까?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꼴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모든 조사 항목에서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했다. 극심한 공부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를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과 비교에의 노출로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우리 사회가 아동과 청소년들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이유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왔다. 경쟁만을 강조하는 사회풍조 자체가 문제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는 한 것일까?

하나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와 협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대와 협동은 공감능력과 소통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 중요한 것은 연대와 협동, 공감과 소통 이전에 구성원들이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사회의 미래 그 자체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몸과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 무한경쟁의 논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하고 있다.

미래를 만들어갈 역량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놀이와 자유로운 상상에서 생겨나는 창조적 잠재성의 거대한 호수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호수를 바닥이 드러나도록 방치하면서 ‘창의’와 ‘경쟁’을 외친다.

## 소셜 네트워크, 진실을 구별하라

한 연예인의 음주운전을 두고 인터넷과 신문 기사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열매설이 나돌기도 하고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 매체가 기사를 쓰면 그 진위는 파악하지도 않은 채 새 이야기들을 가지치며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음모론의 희생자였던 연예 온라인 매체가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론하기 전에는 경찰을 동원한 합정 수사였다는 음모론이 널리 힘을 얻고 있었다.

한 종합격투기 경기에서 부대표가 선수를 향해 한 말 또한 와전이 되어 수많은 비난이 한 사람에게 쏟아졌는데, 한 블로그의 확인되지 않은 글 하나 때문이었다.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많은 정보가 생성이 되고 널리 퍼지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쉬운 이용은 루텐베르크의 인쇄술처럼 지식이나 정보가 일부에게 독점되지 않고 대중에게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다. 페이스북의 최근 사용자는 6억명을 넘어섰으며, 한국 토종 소셜인 카카오톡은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편리함과 반응성은 네트워크를 더욱 좁게 만들었으며 확산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다.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는 많은 사용자들 기반으로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신문을 보지 않더라도, TV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지구 반대편의 아이스버

이렇게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어리석은 짓’이 대학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여기서도 맨 앞에 놓인 목표는 경쟁력 강화다. 모든 학문의 가치는 경제적 효용성으로 측정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학정책이 맞추어진다. 대학정책뿐만 아니라 연구와 교과과정마저도 화폐적 기준으로 측정된다. 그래서 인문학에서도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라는 ‘문화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진다.

학문적 연구 결과가 효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초학문에서부터 학문적 역량의 저변이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철학, 역사학, 문학, 물리학, 수학 등 순수학문 분야가 거대한 지식의 호수를 만들었을 때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들이 효용성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갈아먹으면서 경쟁력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만큼 지식의 호수를 메마르게 하면서 지식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대학은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공감능력과 소통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최소한 승자독식의 교육제도에 짓눌려 창의적 잠재성이 손상된 학생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학은 비판의 목소리는커녕 자기 파괴적 교육정책에 편승하고 있다. 이제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대학의 존립 자체를 허물어 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것이 이 나라에 소개되어 유행하기도 하고, 반나절만에 한 사람의 사소한 일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도 한다.

소셜 네트워크는 개인의 인맥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생성되어지고 강화·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이야기는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아도 진실인 것처럼 유통되어진다. 나의 인맥인 친구가 한 말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도 힘을 얻고 관계와 관계를 넘어 수많은 독자를 양산한다. 자정기능이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진위 여부를 살피기 위한 냉철한 판단은 소셜 네트워크의 관계망 속에서 녹아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다. 근거없는 의학 정보가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전해져 치료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근거없는 사실과 집중된 비난에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이 무너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알고 쓰면 악이고, 모르고 쓰면 독이라는 말처럼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전해지는 이야기를 곧바로 세상에 말하기 전에 합리적인, 근거는 충분한지, 최초 정보 제공자는 누구인지 생각해보자. 진실의 문은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 제주대 LINC사업단 2년 연속 최우수

'강소산학협의회'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 공로 인정

이상백 단장 “대학과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 되겠다”

제주대 LINC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 (단장 이상백 생명과학 공학과 교수)이 “2014 산학협력 엑스포”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LINC 사업단은 ‘제주형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강소산학협의회’를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LINC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또한 전국의 LINC사업단이 선정하는 ‘우수성과 최우수 출품사업단’으로 뽑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선정했으며, ‘2014 현장실습 수기 공모

전’에서는 김영진(경영정보학과 4)씨가 우수상으로 선정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제주대 LINC사업단의 캡스톤 육선 시스템이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반영돼 ‘캡스톤 디자인 육선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였다. 육선마켓에는 전국 대학생의 아이디어 작품 총 60점이 출품돼 기술 아전 등의 거래가 이뤄졌다. 제주대는 인문사회·예체능 분야에서 ‘현금영수증’팀(팀장 이한솔 회계학과 4)이 참가해 2건의 기업 투자를 이끌었다.

이상백 단장은 “산학협력이 지역

산업의 고용 및 기술 혁신으로 이어져 대학과 지역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남은 기간 동안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산학협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윤 기자

할망·하르방이 들려주는

여섯 번째 옛날이야기

박물관(관장 허남춘 국어국문학과 교수)은 11월 12일 오후 4시 박물관 2층 전시실에서 이용옥 심방을 초청해 제주 신화에 대해 강연을 갖는다. 이 심방은 ‘제주 무속인의 삶’과 ‘무속 속에 숨은 제주 신화 이야기’에 대해서 강연한다. 부찬우 기자

## ‘One-Stop 시설 도우미’ 빠른 대응으로 호평

평균 처리일 약 1.2일 기록

전화 보수 요청시 업무 지연

날씨가 추워진 탓에 제주대 직원 A씨는 보일러를 가동시켰지만 작동이 안 돼 곤란함을 겪었다. 또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는 소변기와 세면기가 막혀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경험했다. 이들은 모두 One-Stop 시설 도우미에 보수를 요청했더니 신청 당일 바로 문제가 해결됐다.

One-Stop 시설 도우미의 실적이 최근 호평을 받고 있다. One-Stop 시설 도우미는 학내 시설물 고장이나 파손 등 불편사항을 접수해 문제를 처리하는 행정서비스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시설과(과장 최승화)에 접수된 시설물 보수 신고건은 △건축=1665건 △

기계=2425건 △전기=1504건 △통신=1340건이 접수됐다. 이 중 5건을 제외하고 모두 처리완료 됐으며 평균처리일은 약 1.2일이다.

이종인(관광경영학과 4)씨는 “학생생활관 의자가 부서져 행정실이 아닌 One-Stop 시설 도우미에 신청한 적이 있었다”며 “담당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설물 보수가 처리돼 새 의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One-Stop 시설 도우미에 보수를 요청하려면 하영드림이 기타업무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담당 직원들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시설물 보수를 진행한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로 보수를 요청하거나 다른 행정업무 관련 질문을 해 업무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설과의 입장이다. 실제로 시설과(과장 최승화)에 접수된 시설물 보수 신고건은 △건축=1665건 △

를 처리하기 위해 전산상의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기주 시설과 실무관은 “지난해보다 One-Stop 시설 도우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이 늦춰진다”며 “하영Dreamy를 통해 신청을 하면 처리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규 기자

김연주 문화공간 기획자 강연

‘문화공간 제주도를 바꾼다’

문화광장은 11월 12일 아라뮤즈홀에서 문화공간 기획자 김연주씨를 초청해 ‘문화공간 제주도를 바꾼다’를 주제로 강연을 갖는다.

이 강연에서는 기획 전시 이야기를 통해 제주의 문화공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김하윤 기자

‘일본심진분류법’을 포함한 6514권의 도서가 모두 일본원서로 보관돼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관서청년회의 기증을 기념하기 위해 ‘애향의 서’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정현 기자

재일동포 오찬익 회장

발전기금 1억원 쾌척

재일동포 사업가인 오찬익 회장이 10월 30일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오 회장은 2012년 1억500여만원

을 기부하는 등 총 2억14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그는 현재 ㈜미하마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강수빈 기자

제주화력발전 전제순 소장

발전기금 3천만원 전달

제주화력발전소 전제순 소장이 10월 21일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전기공학과 자원과 인재양성관 건립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발전기금은 제주화력발전소가 제주대 건물 옥상을 활용해 운영한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금을 환원한 것이다. 한편 제주화력발전소는 2013년부터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하기로 약정했다. 김해건 기자

교육대, 도내 초등학교 대상

무료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

교육대학(학장 김익상 초등영어교육전공 교수)은 내년 1월 5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꿈을 키우는 초등창의컴퓨터교실 7기’를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중심으로 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으로 도내 초등학교생들에게 올바른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다. 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게 된다.

교육 대상과 인원은 초등학교 3~5학년 총 56명이며, 참가 신청은 11월 19일부터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부 사이트(<http://cafe.naver.com/creativecompu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찬우 기자

| 제주대신문                          |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                              |  |
|--------------------------------|------------------------------------|------------------------------|--|
| 발행인·총장 허형진                     | 편집인·주관 최낙진                         | 편집국장 강경태                     |  |
| 부90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                                    | 전화번호 064)754-2114            |  |
|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                                    |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  |

## 제34회 백록학술상 공모

신문방송사에서는 제주대신문 창간 60주년을 맞아 제34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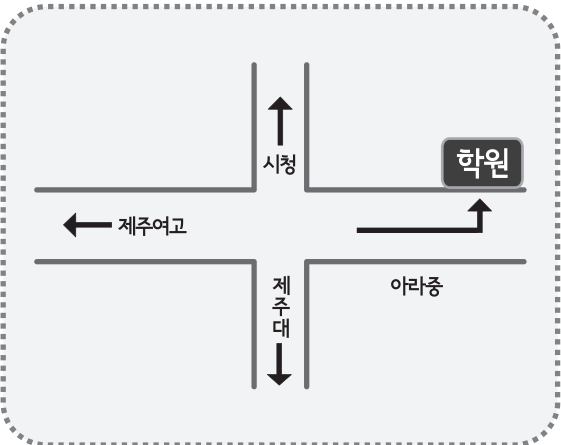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30매 내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ac.kr](mailto:press@jeju.ac.kr)로 제출해야 함.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졸업논문 응모가능  
※원본 파일은 본인 이름,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
- 시 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마감 : 2014년 12월 19일(금) 16:00까지
-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당선발표 : 2015년 신년특집호(2015년 1월 1일자)

###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 운전면허

##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요강

2015학년도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및 인원 |             |      |     |                                 |
|-----------|-------------|------|-----|---------------------------------|
| 과정        | 학과          | 모집인원 |     | 비고                              |
|           |             | 내국인  | 외국인 |                                 |
| 석사학위      | 스토리텔링학과     | 23명  | 약간명 | 학과별 선발인원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함. |
|           | 심리치료학과      |      |     |                                 |
|           |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 |      |     |                                 |

※ 외국인인 '외국인 입학전형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지원하는 학과의 정원 외로 약간명을 별도로 선발한다.

| 전형일정 및 장소 |                                          |                                                                                 |                                                                                                    |
|-----------|------------------------------------------|---------------------------------------------------------------------------------|----------------------------------------------------------------------------------------------------|
| 구분        | 기간 및 일시                                  | 장소                                                                              | 비고                                                                                                 |
| 입학지원서접수   | 2014. 11. 24(월)~11. 28(금)<br>09:00~18:00 | 사회교육대학원<br>행정실(사라캠퍼스)                                                           | 입학지원서 및 면접고사카드는<br>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br>( <a href="http://gsse.jeju.ac.kr">http://gsse.jeju.ac.kr</a> ) |
| 수험표 교부    | “                                        | “                                                                               | 접수와 동시에 교부                                                                                         |
| 면접고사      | 2014. 12. 13(토) 16:00                    | 교육대학<br>(사라캠퍼스 내 시험장)                                                           |                                                                                                    |
| 합격자 발표    | 2014. 12. 26(금) 14:00 예정                 | 사회교육대학원 홈페이지<br>( <a href="http://gsse.jeju.ac.kr">http://gsse.jeju.ac.kr</a> ) | 개별통지 안함                                                                                            |
| 합격자 등록    | 2015. 2월 초순경                             | 지정 금융기관                                                                         | 추후 공지                                                                                              |

| 지 원 자 격                                                |  |
|--------------------------------------------------------|--|
| 1. 국내·외 대학(4년제)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5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인 자 |  |
| 2. 전향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  |
| ※ 지방학과는 출신대학의 학과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음.                       |  |
| ※ 문의=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행정실(064-754-4731, 4769).            |  |

# 전임교원 확보율 2위지만 일부학과 법정기준 미달

<지역거점국립대학 기준>

관광경영·회계, 교수 1인당 학생수 기준보다 2배 높아

교무과 “한 가지 수치로 교원 증감 결정할 수 없어”

제주대의 높은 전체 전임교원 확보율에 비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비롯한 몇 학과가 전임교원확보를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10월 1일 기준 지방거점대학 평균 81.9%보다 높은 94.4%이다. 이는 지방거점대학 중 서울대(119.2%)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전임교원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 전임교원 확보율은 교육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규’에 따르면 교수 1인당 학생 수

는 인문사회계열 25명, 자연과학 20명(간호학과 포함), 공학 20명, 의학 8명(수의학·학과 포함), 법학전문대학원 15명이다.

그러나 사회과학대학과 경상대학을 비롯한 많은 학과의 전임교원 수는 법정교원정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상대학 관광경영학과는 교수 7명에 학생 395명으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56.4명이다. 이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명시된 교수 1인당 학생 수 25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교수 1인당 학생 수 상위학과 △관광경영학과 56.4명 △회계학과 53명 △생활환경복지학과 43명 △경영학과 39.4명 △관광개발학과

36.4 △정치외교학과 36.4)

서예원(관광경영 1)씨는 “교수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이 많다보니 제대로 된 지도와 상담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많은 학과가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특수대학을 비롯한 일부 학과가 수치를 높여주는 착시효과를 가져다 준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1인당 학생은 14명, 11.5명, 1.9명, 4.1명으로 법정기준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전임교원 확보율은 계열별로 심한 편차를 보였다. 또한 교수 수는 각각 36명, 47명, 101명, 27명으로 제주대 전체 587명 중 211명으로 36%의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대학(원)들이 해당 설치 법령에 따라 전임교원 정원이 특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립대로서 교원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 사립대와 달리 전임교원 증감에 있어 수직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또 전임교원 증감에는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기초 학문의 연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과 국제사업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서영진 교무인사팀장은 “교수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으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인정한다”며 “계속해서 공제 모집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임교원의 공급이 한계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지민 기자

## 2015학년도 총학·총여 정책토론회 열려

오는 13일 2차 토론회 개최

2015학년도 총학생회 1차 정책토론회가 ‘SO아라’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와 ‘신세계’ 선거운동본부가 참가한 가운데 11월 4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명찬 수학과 4)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기성회비 개편’에 대한 질문에 양 선본은 모두 어떤 정부의 조치가 있는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겠다고 답했다.

‘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에 ‘SO아라’는 “학생회의 4·3유적지의 지속적인 방문 및 학내 추모시설 설치와 위령제에 대통령령의 방문을 촉구하는 원정대를 꾸려 광화문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고 했다. ‘신세계’는 “모바일 학생증의 총학생회 페이지를 통해 4·3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게시할 것”이라며 “대통령 방문 촉구와 4·3교류에 힘쓰겠다”고 했다.

패널과 일반 학우들은 ‘SO아라’의 공약 중 ‘발전기금 장학금’, ‘한라터 평탄화 사업’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또 ‘신세계’의 공약에는 ‘모바일 학생증’, ‘음광발 음악회’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참석한 학생들은 토론회 질의의 순서와 문답 시간 제한의 부재, 사회자 역할, 패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불만



11월 4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총학생회 1차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입후보자들이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을 표출했다.

2차 총학생회 정책토론회는 11월 13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11월 6일에는 2015학년도 총여학생회 정책토론회가 ‘소공녀’ 선거운동본부가 참가한 가운데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현열 캠페인, 시험기간 24시간 여자수면실 개방 공약 누락’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홍은혜 정입후보자는 “복지과의 답변이 확실하지 않아 공약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며 “여학우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 제외했다”고 했다.

이어 ‘대운동장 벽화 봉사활동에 대한 12개 단과대학 참여 여부’에 대

해 질문이 있었다. 홍 정입후보자는 “12개 단과대학의 입후보자에게 확인 받은 상태이다”며 “자기 후보자들과 상의를 거쳐 단과대학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운동장 벽화 봉사활동 예산 과잉’ 문제에 대한 추가 질문에서 홍 정입후보자는 “본부서 주변을 미화하는데 페인트가 많이 소모됐다”며 “상상 유니브측과 상의한 결과 면적상으로는 2/3를 절하지만 페인트량에서는 오히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단과대학들과의 소통, 총여학생회가 학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생리대 자판기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전지민·강서윤 기자

<제주대> <상명대>  
전기공학과-에너지그리드학과

11월 7일 공동학술제 열어

전기공학과(학과장 김호민 교수)와 상명대학교 에너지그리드학과가 11월 7일 공과대학 2호관에서 공동학술제를 열었다.

‘건물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그리드 인력양성 기초트랙’과 제 중 하나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V2G를 고려한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시스템 및 블루투스를 이용한 제어 동작 등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실생활에 밀접한 에너지 분야의 불편했던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명품을 전시했다. 박소연 기자

자연과학대-류큐대학교

10월 17일 교류협정 체결

자연과학대학(학장 김세제 생물학과 교수)과 일본 류큐대 이학부(이학부장 히데오 야마사키)는 10월 17일 제주대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양 기관 간 학생교류와 상호협력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정에 따라 학생들의 공동계절학기 운영, 상호 교류 프로그램 개설과 학술정보 교류 활성화 방안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김세제 학장은 “협약을 계기로 자연대와 류큐대 이학부 간의 활발한 학생교류 및 학술교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규 기자

## 불법주차로 백두관식당 업무 차질 빚어

주방 입구 막아 손수 운반

연락처·메모 없어 속수무책

백두관식당 뒤편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식자재 배송차량과 음식물수거차량이 식당 주방에 접근하지 못해 식당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체육관과 한라터 사이길은 백두관 식당 업무를 위한 차량이 오가는 통로로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다. 매일 아침 식자재 차량과 음식물수거차량은 사이길들을 통해 백두관식당 주방 업무를 처리한다. 하지만 주차된 차량이 식당 통로의 입구를 막아 식당관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불법주차된 차량에는 차주가 연락치나 메모도 남기지 않아 직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식품 업체 차량이 주방 앞으로 접근하지 못해 먼 곳에서 물품을 직접 손으로 나르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분주한 아침 시간대에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해 식당



10월 27일 백두관식당 주방 입구에 차량이 불법주차 돼 있어 식자재 배송차량과 음식물수거차량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직원과 식품 업체 직원 모두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생활협동조합(이사장 고은희 학생처장 수학교육과 교수)은 차주들에 불법주차 사실을 알리고 차 급적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글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런 경고 문구를 무시한 채 불법주차를 하는 상황이다.

김연심 주방주부는 “불법주차에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해 식당

확인하면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많았다”며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차한 경우에는 연락처를 남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표철철 총무과 실무관은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백두관식당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생활협동조합 관계자들과 논의해 주변 주차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18일 실시… 경상대만 경선

자연과학대·예술디자인대 보궐선거 결정

교육대는 19일부터 후보자 등록 시작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각 단과대학 대의원의 주관으로 11월 18일 각 단과대학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경상대학은 ‘내계기대’ (정·유창민 경제학과 3, 부·김재홍 회계학과 2)와 ‘함께하는’ (정·강승봉 경영학과 3, 부·양재민 관광개발학과 3)이 출마해 경선을 치른다.

경상대학을 제외한 9개 단과대학은 단선 입후보했다. 등록 결과 △인문대학= ‘사람사이’ 정·고수용(국어국문학과 2), 부·최가를(영어일본학과 3) △사회과학대학= ‘청춘’ 정·문준영(언론홍보학과 2), 부·장영하(정치외교학과 2) △사범대학= ‘사심가득’ 정·양해찬(국어교육과 2), 이경진(영어교육과 2) △생명자원과 프로그램 개설과 학술정보 교류 활성화 방안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김세제 학장은 “협약을 계기로 자연대와 류큐대 이학부 간의 활발한 학생교류 및 학술교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규 기자

-김성용(전자공학과 3) △수의과대학= ‘VETAMIN’ 정·추승완(수의학과 1), 부·김민진(수의학과 1) △간호대학= ‘함께간대’ 정·조성우(간호학과 2), 부·김지은(간호학과 2)

김해건 기자

## 제주대-성균관대 학술교류 협정

10월 31일 성균관대서

제주대와 성균관대(총장 김준영)는 10월 31일 성균관대에서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양 대학은 협약을 통해 △교직원 상호 교류 △교수 및 학생의 학술활동 교류 △학술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출판물·도서·교육자료·정보의 상호교환 △시설물의 상호 이용 등에 협력키로 했다.

협정 체결식에는 허항진 총장을 비롯한 제주대 관계자와 성균관대 김준영 총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 대



10월 31일 성균관대에서 제주대와 성균관대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학의 상호 이해증진과 다양한 교류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박소연 기자

### 사람들

기초연구 우수과제에 선정

최광식 연구팀

최광식(해양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제주연안 아열대 굴의 번식, 면역 생리 및 분자생물학적 분류’가 11월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기초연구 우수성과 50과제’에 선정됐다.

‘제주연안 아열대 굴의 번식, 면역 생리 및 분자생물학적 분류’는 해양생명기후연구 분야의 <아류 및 패류 면역학회>에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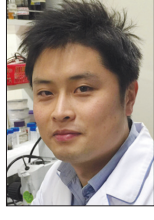
표한 것이다. 연구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대표적 기후변화 종인 아열대성 굴 세 종의 혈구세포형태와 면역 기능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논문의 제1저자는 홍현기(해양생명과학과 박사과정 수료) 대학원생이며, 공저자는 강현실(BK21+ 아열대해양생명 국제인력양성사업팀) 박사이다. 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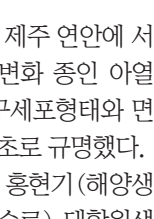
최광식 교수



강현실 박사



홍현기 대학원생



정현 기자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상

강창희 교수

강창희(화학·코스메틱스학부) 교수가 10월 3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4년도 한국대기환경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대기환경 분야의 학술연구와 다수의 우수 연구논문 발표로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강 교수는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한반도로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우리나라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20여년간 수행했다.

강 교수는 “교수로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며 “연구와 교육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SCI논문 44편, 국내 학술지논문 106편, 국제학술대회발표 99편, 국내학술대회발표 221편, 저서 15편 등의 연구실적을 올렸다. 환경부장관상, DI분석과학상, 탐라수승상, 과학기술훈장수문상을 수상했고 한국대기환경학회와 한국분석과학회 부회장, 한국기후변화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강수빈 기자



일본근대학회 학술상

이예안 교수

이예안(통번역대학원 한일과) 교수가 11월 1일 일본 가코시마국제대학에서 열린 한국일본근대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학술분야에서 국제 및 국내 전문학술지에 『도서에서 본 뱀과 설화 비교고찰-오키나와와 제주』의 뱀 설화를 중심으로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학술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이 교수는 그동안 한국일본근대학회 총무·학술·기획이사 등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 학술상은 국내 일본 근현대 관련 인문학 분야 대표적인 학회로 해마다 4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회원을 각 나라별 1명씩(한국인 2명, 일본인 2명)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일본근대학회는 근현대 한일교류를 컨셉으로 한국과 일본 연구자가 1대 1 참여를 지향하는 학술 활동을 추진해 왔다. 유주연 기자



식품영양과학회 부회장 선임

임상빈 교수

임상빈(식품생명공학과) 교수가 10월 27일부터 4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년도 (사)한국식품영양과학회(회장 김현구) 국제심포지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학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부회장에는 한국식품연구원 권대영 박사, CJ제일제당 김철하 박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박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이시우 박사가 공동 선임됐다. 임기는 2015년 1월부터 1년간이다.

임 교수는 “학회장을 보필하며 한국식품영양과학회가 국제적인 학회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겠다”며 “앞으로 국민영양보건의 향상 및 학술문화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1971년에 창립된 식품관련 전국 규모 학회로 회원은 전국 식품관련 교수, 학생 및 산업계 종사자로 약 2000명에 달한다. 식품과 영양에 관한 학술연구발표회, 강연회 등을 개최하거나 식품과 영양관계 연구 학술지를 발표한다. 정현 기자



피아노 연주회 열려

박순방 교수

박순방(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부) 교수가 11월 7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아라뮤즈홀에서 서영화(조선편 음악교육과)교수와 함께 피아노 듀오 연주회를 가졌다.

음악학부(학부장 심희정 교수)가 주최한 이번 연주회는 바흐의 ‘Sicilienne’ 곡을 시작으로 ‘In A Persian Market’, ‘Valse-fantasia’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김정희(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부), 이한나(조선편 음악교육과) 교수 등이 찬조 출연해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barcarolle(베토벤)’, ‘10월에 어느 멋진날에’를 공연했다.

박순방 교수는 “매년 제주를 찾아 함께 연주를 해주시는 서영화 교수님께 감사하다”며 “피아노 듀오 연주에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연주회가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박순방 교수



서영화 교수

영남미술대전 초대작가 기념전

이명곤 교수

이명곤(철학과) 교수의 영남미술대전 초대작가 기념전 ‘멀리 되돌아보며…’가 11월 3일부터 7일까지 박물관 3층 기획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이 교수의 한국화 초대작가 등단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공식적인 첫 개인전이다. 전시회는 작은 소품을 그린 그림부터 큰 화폭까지 다양한 한국화가 전시됐다.

이 교수는 “학교에서 전시를 하니 다양한 사람들이 전시회를 찾아줬다”며 “일종의 삶의 흔적 같은 그림들을 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줬다는 것에 만족감과 행복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문적인 화가가 아닌 철학과 교수의 전시회라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안고 많이 찾아줬던 것 같다”며 “조촐하게 전시회를 하려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해정 홍순록 선생 문화에서 문인화를 수학과 영남미술대전에서 장려 및 우수 입상에 2014년 영남미술대전 초대작가로 등단했다. 유주연 기자



추계통합학술대회 장려상

좌봉두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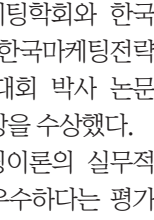
좌봉두(경영학과) 박사가 10월 18일 ‘참여와 나눔의 마케팅’을 주제로 한남대에서 개최된 한국마케팅학회와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및 한국마케팅전략학회 추계통합학술대회 박사 논문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좌 박사는 마케팅이론의 실무적 연계와 적용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 상을 받았다. 강경태 기자

ISNFF 학술대회서 수상

이지혁 원생

이지혁(해양생명과학과 박사과정)씨가 터키에서 개최된 ISNFF 국제학술대회에서 기능성 식품 전공 젊은 과학자들에게 수여하는 ‘Fereidoon Shahidi Fellowship Award’ 상을 수상했다.

이씨는 지금까지 16편의 논문을 국제 SCI급 학술지에 발표한 공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강경태 기자



정현 기자



정현 기자

# ‘Carbon Free World’를 창조하는 엔지니어 양성

〈 탄소 없는 세계 〉

## 대학특성화(CK)사업단 < 3 > 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 융·복합산업 인력양성사업단

대학교조개역에 따른 대학특성화(CK·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사업에 제주대는 4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사업단은 5년간 180억(연 36억원)을 지원받으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각 사업단의 목표와 특색 있는 인재 양성 방안을 자세히 살펴봤다. (편집자 주)

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 융·복합산업 인력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은 8개 학과(전기공학과, 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에너지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의 51명 교수와 1111명의 참여 학생(전기공학과 187명, 통신공학과 163명, 컴퓨터공학과 158명, 전자공학과 140명, 기계공학과 136명, 에너지공학과 127명,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14명, 생명화학공학과 86명)으로 구성됐다. 사업단은 제주도의 ‘Carbon Free Island’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은 국제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이고 실력있는 엔지니어 양성을 비전으로 하며,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선도할 역동적인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개방형 지식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했다.

### ◇사업단 참여 학생들이 받는 혜택

스마트-청정에너지 사업단은 4개 사업단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참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또한 다양하다. 이들은 △특성화 장학 프로그램 △비교과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 학부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지역 및 외국과의 연계방안 등 세 가지 분야에 걸쳐 학생들을 지원한다. 특성화 장학 프로그램의 경우 복수전공 장려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특성화 사업단 내 복수 전공 신청자(3학년 대상)와 복수전공 신청자 중 일정 학점 이상 이수자(4학년 대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는 사업단이 목표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 확보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참여 학생들의 교육능을 향상과 취업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각종 ICT 자격증 취득 장려 장학금을 마련했다.

1학년의 경우 컴퓨터활용능력 2급, MOS Core 3과목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3학년 이하 모든 학년들에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와 NOS Master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 장려를 위한 장학금 △국내외 특성화 분야 작품 또는 논문 발표의 지원을 위한 장학금 또한 존재해 참여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의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위한 각종 자격증을 따기만 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단은 교과 활동이 가장 기본적인 실력 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비교과 활동에서의 실력 양성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다. 참여 학생이 특정 동아리를 만들어 작품준비를 하거나 논문·실험 실습을 하고 싶은 경우에도 사업단 소속 교수의 지도 하에 1년에 2번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이 ‘국내 타 기관 운영 특성화분야 전문교육 연수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5개나 준비돼 있어 말 그대로 학생들은 ‘공부만 하면 된다’는 환경을 마련했다.

앞서 언급한 교과·비교과 활동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큰 지원사업은 사업단의 외국연수 프로그램이다. 사업단은 특성화분야 해외 정규대학 연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학년 대상) 미국 네브래스카 대학, 텔라웨어주립대학, 호주 선샤인코스트 대학 등 해외자매대학과의 장·단기 연수를 제공한다. 또한 뉴욕주립대학·나가사키대학과의 특성화분야 연계전공 개설로 학생들이 넓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은 장학금 혜택 외에도 취업을 어



스마트그리드-청정에너지 융·복합산업 인력양성사업단의 최종목표인 ‘탄소 없는 섬’ 계획도.

떻게 할 것인가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학부생(사업단 참여 학생)의 취업을 제고 방안을 다양하게 준비중이다. 학부생의 진로 계획과 설계를 위해 교내외 특성화 전문가들에 의한 강의와 연수 참여기회를 늘리고, 특성화 분야 CEO강좌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의 업무 능력을 배양시킨다. 취업률의 상승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고자 사업단은 졸업전 취업예약제를 실시한다. 이는 졸업을 앞둔 4학년이 학기 초에 취업할 회사를 결정케하고, 졸업전까지 취업 후 하게 될 업무를 집중 교육해 준석사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회사에 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사업단은 채용자와 취업자간의 상호만족도를 향상시켜 이직률을 낮추고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타 사업단의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과 같이 전문가·교수와의 정기적인 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교육과정과 진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세미나와 기업현황 견학교과목을 신설·개편 하고있다.

### ◇사업단의 향후 과제

사업단의 과제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과 더불어 미리 뛰어난 학생들을 사업

단에 속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 고교학생 중 문과출신자의 상당수가 공대 진학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대학 입학 후 학생들에게 다시금 이과 계열의 교육을 제공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사업단은 고교 재학생들이 처음부터 이과를 선택하고 수능에서 수학 ‘가’형과 ‘물리’교과목 선택을 하도록 고교 상담회 등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캠퍼스 투어와 진로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과 출신 학생들이 공학분야에 지원하도록 입학 요강 수능 점수 중 수학 ‘가’형과 과학교과목 ‘물리-화학’을 선택한 학생에게 가점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했다. 신입생 선발시 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 관련분야 전공 발명대회 입상자에게 입학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사업단은 이공계열의 고질적인 문제인 여성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남학생 위주로 진행되던 공학체험 캠프를 여고생 대상, 나아가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해 운영한다. 스마트-청정에너지 사업단은 2014년 6월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4년 9개월간 인재 양성과 더불어 제주대의 경쟁력을 책임진다.

강수빈 기자

인터뷰 이개명(전기공학과 교수) 사업단장

## “기본지식에 충실한 공학인 양성 목표”

### ▶사업단장으로서의 포부.

“이번 대학특성화사업은 교육부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전개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 연구에 있어서 제주대를 전국 어느 대학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할 것이다.”

### ▶사업단의 역할은.

“사업단의 방침에 따라 운영되는 소속 학과들이 특성화 분야 교육역량과 기반을 구축해 우수 인력을 배출하게끔 하는 것이다. 사업단의 핵심 사업내용은 참여학과와 특성화분야 기반 구축을 비롯해 교육환경 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다. 이와 더불어 특성화 분야가 첨단기술분야임을 고려해 첨단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특성화분야 산학연관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제주대 특성화 교육에 참여와 지원을 유도해 취업기반을 활성화하고 협력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CK-1)으로 선정된 배경은.

“사업단 소속 구성원들의 양보와 협력이 가장 큰 사업 선정 배경의 원천이다. 개별 학과로서는 다소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음에도 사업참여 8개 학과 교수진들이 기꺼이 학과 체제 변경에 동의했다. 또한 특성화분야 관련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가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이고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가 국내·외적으로 해당 분야의 산업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 사업계획서가 제안되기 전까지의 수많은 회의와 자



료 분석·정리, 집필 등에 힘써준 구성원들에게 다시 감사를 표하고 싶다.”

▶스마트그리드·청정에너지 사업단의 목표.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신재생원료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미래에는 꼭 필요한 기술 분야이다. 현재 제주도는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을 목표로 매스컴을 통한 에너지 수급 및 단계적 조성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사업단의 최종 목표는 미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에너지 해결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카본프리월드를 구현하고자 한다.”

### ▶사업단이 원하는 인재상은.

“사업단의 기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 학문적 소양을 잘 갖춘 기본지식에 충실한 공학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내용 교육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실험실습과 강의 여건 등을 개선할 것이다. 사업단 관련학과뿐만 아니라 교내의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닝 콘텐츠 등을 통해 외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청정에너지와 관련해 경쟁력을 높이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우리대학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관심, 성원이 필요하다. 사업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대학 전체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김하윤 기자



## 한방차에서 맡은 창업 성공의 향기

### 당신의 생각은 옳다

최 승 윤 / 오가다 대표

제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취업보다 창업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부모님은 일단 회사에 들어갔다가 창업을 하고 싶으면 그때 하라고 말했지만 마음먹은 건 당장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무작정 취업해서 남의 회사라고 대중 시간을 보낼 모습을 상상하니 도저히 용납이 안됐다. 그래서 지난 2009년 25세의 나이로 창업의 길을 선택했다.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다 마침내 고른 사업은 한방차였다. 어릴 적 집에서 마셨던 따끈한 한방차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서울시청 인근에 다섯 가지 한방차를 테이크아웃 방식으로 판매하는 2층 남짓 가게에서 현실이 됐다.

### ◇어릴 적 마셨던 한방차를 테마로 창업

하지만 세상 일이 모두 그렇듯 손쉬운 성공은 없었다. 매장을 연 첫날 지인이 팔아준 매출이 전부인 상황 앞에서 ‘커피 대신 한방차’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기대가 너무 컸던 나머지 엄청난 좌절감이 몰려왔다. 영업 둘째 날, 젊은 여성 두 분이 매장을 찾았다. 진정으로 감사하면서도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그 후 매 순간순간마다 성심성의껏 손님들을 응대하겠다고 결심했다. 매장을 찾는 손님들의 인상착의나 인적사항, 그리고 어떤 메뉴를 주문했는지 등을 기억하려 애썼다. 진심으로 손님을 응대하면 그 진심이 통해 손님들이 다시 매장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진심은 손님들에게 전해졌고 주변에 입소문을 내주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첫 날 공을 치던 매장에서 하루 500여 명의 손님들이 찾을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 매장을 연 지 3개



“자신이 부족한 것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는 나이와 체력 등 청년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월 만에 2호점을 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에 3호점을 내는 등 성장세를 타기 시작했다. 5년 후 조그만 찻집은 국내의 모두 합쳐 51개(일본 3곳) 매장을 운영하는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인천공항과 방승국 등 상징적인 장소에 매장을 내며 지금보다 많은 이들이 오가다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올 연말에는 서울 강남의 코엑스에도 매장을 연다. 유명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모두 탐내는 자리였지만 한방차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응찰에 성공했다. 한방차 전문점이기 때문에 입점할 수 있었던 곳도 많다. 특히 청와대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적불명의 커피 전문점이 들어서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오가다는 일본 등 해외진출도 이뤘다. 최근에는 아랍권에서 프랜차이즈 제안이 들어와 검토하고 있다.

### ◇자신감과 도전정신이 일류내

공공 장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리더십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이뤘을 때부터 배웠다. 고등학교 시절 학생회장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 뽐내기를 좋아했고 저한테 잘 맞았다. 학교 선배님이신 손기정 선수의 기념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적이 있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손기정 선수의 존경과 패유를 기원하는 자필 편지를 쓰도록 하고, 월계관을 직접 만들어 그를 찾아갔다. 창업에 대한 관심은 이미 대학 3년 때부터 시작했다. CI(Corporate Identity) 디자인회사를 세우고 영업부터 시작했다. 청년창업가들이 다들 온라인 쇼펄과 앱 개발에 몰두할 때 발로 뛰며 사람들과 직접 맞부딪쳤다.

예비 창업자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청년 창업이든 인생 이모작이든 오래 갈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창업의 핵심이다. 매장을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유행을 좇는 단명형 아이템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가다는 커피만큼 오래된 인류의 차 문화에서 시작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른 카페들과 달리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도 고유한 문화를 차별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후배들에게 창업정신을 전수하기 위해 매장을 직접 운영할 기회를 주는 ‘청년창업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창업은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갖고 남들이 하지 않는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 도전하는 것에 자신이 가진 철학을 집목시켜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 창업인들은 부족한 인적 네트워크, 자본금 등 한계점만 찾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부족한 것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는 나이와 체력 등 청년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어떤 길이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기보다는 가장 하고 싶은 걸 고른 후에 노력해서 그 선택이 최고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정용복 팀장

### 세상에 던지는 열정과 도전

강 기 대 / 트랙터 여행가

지난 2008년부터 느린 속도의 트랙터와 함께 하는 여행을 시작해 2009년 3월까지 180일간 트랙터 전국 국토순례를 완주했다. 트랙터 여행을 준비하면서 주변의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보았다. 첫째는 다른 운전자들이 트랙터는 원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배려해주고 양보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둘째는 이 여행이 농기계를 홍보하고 농촌 현장을 방문하는 목적이므로 대도시 변화가로 트랙터를 운전할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2012년에는 1년간 트랙터로 총연장 4만km의 터키와 중국, 중앙아시아 부에 성공했고, 지난해 3월에는 네팔과 인도 등의 실크로드 도보여행 등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 ◇트랙터 타고 전세계 일주

트랙터로 전국일주를 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05년 여름,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로 제게 배바라를 만나면서부터다. 영화는 23살의 의대생 게바라가 낡고 오래된 ‘포테로사’라는 이름의 모터사이클로 남미대륙을 횡단하는 여행을 그렸다. 남미 민중의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는 과정이다. 영화에 감명 받고부터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여행수단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도보 다 이미 나왔던 거라 빼놓고 경운기나 트랙터를 이용한다면 최고의 여행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무작정 13장짜리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전국 1위 트랙터 업체에 찾아가다. 아르헨티나의 리마에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트랙터를 타고 여행하고 싶다고 하니 기획 홍보 부서의 말단 직원을 불러왔다. 물론 퇴짜였다. 국회의원을 찾아갔다. 성과 없이 돌아왔다. 결국 포기하고 군에 입대했다.

시간이 흘러 군 제대를 하려니 막막했다.



“시시콜콜할 정도의 사소한 행동과 습관들이 매 순간을 바꾸고 그 순간들이 모여 삶 전체를 바꾼다”

꿈을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일단 국내에서 트랙터 여행을 완주하면 외국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38장짜리 발표 자료를 만들고 한국농업기계학회 회장님에게 편지를 썼다. 도전 정신으로 여행하면서 자신의 이상을 표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학회장이 어떤 대학 교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누군지 아세요?’라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알고 보니 한 트랙터회사의 이사였다. 우여곡절 끝에 지원 약속을 받았다.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출발해 6개월간의 여정이 시작했다. 어려움에 처한 농민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고자 전국 일주에 이어 더 큰 불가능에 도전하게 됐다. 이후에 여행을 묶은 ‘80일 간의 트랙터 다이어리’란 책을 냈다. 라디오에 출연하고, 대담 토크쇼에도 출연하고 잡지에도 실렸다.

주변에서 처음에는 트랙터 여행은 ‘안 된다, 어려울 거다’고 얘기할 때도 내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르게 생각하기’

의 힘이었다. 가능한 방법이 뭔가도 좋지만 반대로 실패할 경우와 못할 방법을 찾아봤다.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거다. 그랬더니 못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왜 안 되지?’ ‘why not?’을 많이 생각한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이다. 돈이든 사람이든 성공이든, 삶에서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표를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다. 보통은 전자인 목표 지향의 방법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은 험난하며 목표를 달성하고도 허탈함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시콜콜할 정도의 사소한 행동과 습관들이 매 순간을 바꾸고 그 순간들이 모여 삶 전체를 바꾼다.

### ◇다르게 생각해 보자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운명을 정조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봤으면 한다.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정말 괜찮은 일이 있는지 상상해 보자. 죽기 10분 전, ‘아 20대때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했어’, ‘난 최소한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무엇을 이루려 할 때 다른 사람의 눈과 시선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인을 얻되, 모든 결정권은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된다. 하지만 말 뿐이 아닌 실천이 앞서기 위해서는 무슨 일든 미루지 말고 10분 안에 행동해야 한다. 10분 안에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메모하는 습관이야 말로 꿈을 이루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꿈을 실천하는 사람 중에 메모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적은 순간 일이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 꼭 이뤄야만 하는 한 가지 일을 찾아 당장 행동에 나서길 바란다. 정용복 팀장

# 공동선을 위한 공정한 행위의 내적인 원리, ‘양심과 법’

학술기고 고·중세 철학에서 정의실현을 위한 조건들



이 명 곤  
철학과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正義, justice)’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해 보라고 한다면 결코 쉽지 않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크게 유행한 적이 있는 마이클 샌달의 『정의론』에서도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복잡한 사회 안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은 하나의 중대한 사회적 현상 앞에서 두세 가지의 선택지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행위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다. 하지만 샌달 교수는 올바른 행위를 선택하게 하는 ‘내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다양한 철학자들의 체계관이나 가치관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의’의 문제를 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만 다룬다는 것은 ‘정의에 관한 답론’이 ‘정의’를 세우는 실천적인 결과’를 낳기 보다는 자주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대한 논쟁으로 심하게 말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 버린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정의’라는 말은 ‘사회적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학원출판사에서 출간된 『철학대사전』에서는 정의를 ‘사회 공동체의 선을 위한 공정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를 말함에 있어서 ‘공동선(共同善)’을 말한다는 것은 ‘정의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며, ‘공정함’을 말한다는 것은 ‘정의 실현의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의 정의관

플라톤은 『국가론』 제1권에서 소크라테스와 대화 상대자들을 등장시켜 ‘정의(dikaiosyne)’에 관한 담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요약하면 옆 도표와 같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의를 어떠한 식으로 규정하든, 여기에는 불충분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친구에게 총을 빌리고 약속한 시간에 돌려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 같지만, 친구가 분노와 격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총을 돌려줄 수가 없을 것이다. 적에게는 나쁜 것을 주고, 친구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라는 흑백논리의 사고는 동일한 것이 적에게는 정의로나 친구에게는 정의를 지 못하게 됨으로 정의의 개념이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것을 주게 된다는 것도 사실은 정의가 나쁜 것을 더 나쁘게 하는 목적이 아니기에 적합한 개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적자생존식의 자연법적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것도 윤리도덕적인 인간의 행위에 적합하지 않고 이는 ‘공동선’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정의’ 즉 ‘올바름’이란 ‘훌륭한 덕을 소유한 내적인 상태(arete)’로 ‘비-정의’를 ‘악덕을 소유한 나쁜 상태(kakia)’라는 ‘존재론적인 정의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적인 소명의식에 기초한 ‘존재론적인 정의개념’ 역시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정의의 문제란 대개 법적인 문제나 인권의 문제 혹은 양심의 문제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훌륭한 의사나 훌륭한 목수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반드시 올바른 행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서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정의로운 행위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대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불의한 행위를 할 때는 ‘합법적’이라는 법의 이름을 빌어 실행하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계류 중인 법안이 수십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질문은 ‘공동선을 위한 공정한 행위’라는 이러한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 행위의 내적인 원리는 무엇이며, 이러한 내적인 원리가 다양한 사회적 규범이나 법률적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양심’과 ‘법’의 문제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양심과 도덕적 의식

‘정의(올바름)’라는 말이 의미 있는 용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히 인정될 수 있는 ‘당위의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당위의 개념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당연함’의 기준이 되는 ‘옳과 옳’의 개념이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그러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bonum)’ 즉 ‘선한 것’이기 때

| 정의의 이름들                    | 대화자의 규정들                                | 소크라테스의 평가                                                                |
|----------------------------|-----------------------------------------|--------------------------------------------------------------------------|
| 형식적 정의                     | 정직함과 남한테 빚 진(빌린) 것을 갚는 것                |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에 실효성이 없다.                                               |
| 이기적 정의                     | 적에게는 나쁜 것을 갖고, 친구에게는 좋은 것으로 갚는 것        | 무엇이 정의인가 하는 문제가 지극히 상대적이 되어 버린다.                                         |
| 복수법의 정의                    | 올바른 사람에게 좋은 것,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나쁜 것을 준다.   | 일종의 복수법으로서 어떤 것을 해치는 것은 ‘정의’의 목적이 아니다.                                   |
| 악욕강식의 정의                   | 올바름이란 강한자의 편익이다.                        | 인간의 윤리·도덕적인 특성을 제거하며, 정의개념을 無化시킨다.                                       |
| 소크라테스의 최종적인 결론             |                                         |                                                                          |
| 존재론적 정의                    | 자신의 동일성에 적합한 ‘훌륭한 덕을 소유한 내적인 상태(arete)’ |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개인적 정의의 개념에 적합하다.                      |
| 사회적 정의                     | 법률이나 시민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 규정들을 잘 지키는 것        | 직접 민주제인 도시 국가에서는 충분히 수행될 수 있으나, 거대 국가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이행만으로 충분히 정의를 실천할 수 없다. |
| 플라톤의 『국가론』 1권에 나타나는 정의 개념들 |                                         |                                                                          |

플라톤 『국가론』 제1권에서 소크라테스와 대화 상대자들의 ‘정의(dikaiosyne)’에 관한 담론과 정 요약 도표

문이다. 무엇인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인가? 라는 질문은 무엇이 ‘선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전제한다. 인간에게는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진리론』의 『양심 편』을 통해서 이러한 원리를 ‘신데레시스(synderesis)’라고 말하고 있다. 토마스는 인간이 사법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진리들에 있어서 결코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이성(ratio)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적인 영역에서도 결코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양심을 지니고 있다고 통찰하고 있다.

◇인간의 양심에 대한 두 가지 근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간은 ‘선악을 판단하는 선천적인 능력인 양심’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경험적인 고찰의 결과인데, 양심의 행위는 항상 현실적인 삶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가령 인권변호사가 ‘억울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 이는 변호사로서의 그의 모든 지식이나 ‘의뢰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들에 앞서 그의 양심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율적인 인간’이라는 규정이 가지는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내적인 원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양심의 원리가 없다면 모든 행위는 외적으로 규정된 관습이나 법률에 따른 것으로 자율적인 인간의 행위는 있을 수 없게 된다. 선악판단의 원리인 양심은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노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의가 公同善(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면, 여기서 우선적으로 ‘옳’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이 선행되고 나아가 ‘공동선’의 개념이 분명해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후 모든 정의에 대한 문제는 공동선에 대한 서로 간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상대적인 것이 되어 버릴 것이며, 정의의 추구는 곧 서로 자신들의 이념이나 사상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양심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최초의 원리이며, 사회정의를 말함에 있어서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를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는 ‘내적인 힘’이다. 나아가 판단된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즉 ‘양심이 건강한 사람’이 곧 진정으로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양심에 기초한 의식을 도덕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콘시엔티아(conscientia)’라 부르고 있다. 즉 ‘의식하는 행위(conscire)’가 ‘동시적인 앎(simul scire, 복합적인 앎)’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무엇을 안다는 것(cognitio)과 무엇을 의식한다는 것(conscire)은 전혀 다른 것이다. ‘교사’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과 ‘내가 교사인 것을 의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태이다. 전자는 교사에 대한 사전적인 앎이나 전문적인 앎을 의지하지만, 후자는 교로서의 나의 동일성과 연관된 일체의 것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올바름과 그릇됨’을 판단하는 ‘양심’이 기초하고 하고 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덕적 의식을 ‘측정된 척도(regula regulata)’라고 말하며, 모든 상황윤리에서 올바른 행위 즉 정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근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올바른 의식을 가질 때, 사람들은 마치 의사의 처방전과 같이 상황에 적합한 가장 훌륭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제정된 법률을 최대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권하고 싶은 책

## 동·서양인의 분석적 사고의 차이

생각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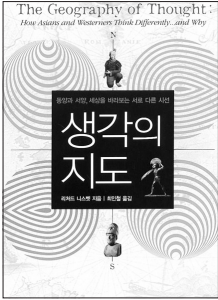
리처드 나스넷(최인철 옮김) | 김영사 | 1만2000원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며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의 원제목은 생각의 지리: 서양인과 동양인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나(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and Why)로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 차이를 놓고서 어항, 두 그림의 차이 찾기, 스포츠 경기에 대한 언론 보도 방식의 차이, 물체의 유사성을 찾는 방식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그림 자료를 통해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전체 8장의 내용 중 5개의 장이 이러한 재미있는 비교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의 장은 그러한 차이가 생겨나게 된 배경, 동양과 서양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다루고 있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일반적으로 책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내용은 서론과 이론적 배경을 다루는 2장인 경우가 많다. 이 책의 한글 번역본은 원본의 2장이 동양과 서양의 사고 방식 차이의 기원을 다루는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고려해 뒷부분으로 옮겨 실음으로써 두 문화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나서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배려도 기울여져 있다.

이 책의 두드러진 흥미로운 차이점은 보면 의학에서 서양은 분석적 전통, 즉 문제를 일으키는 신체 부분을 찾아내어 그 부분을 고치는 방식이다. 반면 동양에서는 건강은 몸 안에 존재하는 기들의 균형으로 유지되며 질병은 약초와 같은 자연산 치료제의 힘으로 치유에 치중하는 방식, 논리 전개의 방식에서 서양인들은 구조를 갖추어 연구배경, 문제제기, 가설 기술, 검증, 증거제시, 논리적 결론과 제언의 단계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반면 동양인들은 이러한 직선적 논리 구조를 학술 논문을 쓰며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히 이 책에서 대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동양인의 종합적 이해와 서양인의 분석적 사고의 차이이다. 이 차이는 쉽게 동양인은 문제에 접근할 때 총체적으로 다가가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contextual under-



standing)를 잘 하는 편이지만, 서양인은 관심 대상에 대한 치밀한 분석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보편적

이다. 예를 들어, 얇힌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동양인은 아마도 느슨하게 실타래를 손에 들고 흔들며 전체적으로 실타래가 풀려 나오길 기대한다면, 서양인은 아마도 분명 실타래의 시작과 끝이 있을 것으로 한쪽 끝을 찾아서 이로부터 역방향으로 한올씩 실을 풀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빨리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비교해 본다면, 동양식은 상황별 소요 시간의 편차가 클 것이며 서양식은 비교적 편차가 적을 것으로, 전자가 우연에 가깝다면 후자는 설사 시간이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신뢰는 높을 것이다. 어느 방식이 더 나은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우리 동양인이 부족한 면을 보완하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대학생활과 관련해 한 가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 차이는 앞에서 언급한 논리 전개의 구조로,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과학적 연구의 누적들로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서양식 논리로 이루어진 성과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 교내나 논문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데 무언가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단지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동양식 사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서 느껴지는 어색함일 경우도 많을 것이다. 더불어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는 경우도 종합적 이해에 익숙한 동양인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의 지도’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대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 수업시간에 다루는 교재내용이나 논문들이 어색한 형태의 글이 아니라, 서양식의 논리적 내용 전개 방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해줄 책으로 읽어 볼 가치가 있다.

권상철  
지리교육전공 교수

대학가 소식

## 釜大新聞

학내 흡연구역 지정

호지부지되나

부산대는 3월부터 시작된 학내 흡연구역 지정 및 홍보 방안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총학생회가 흡연구역에 대한 의견 수렴 이후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내 흡연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총학생회는 지난 6월 흡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승백(법학과 4) 학생회장은 흡연구역 지정 이후 홍보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학본부 차원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유동인구가 많아 담배 연기와 냄새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건물에서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학내 구성원의 불만이 터져 나왔던 제2도서관은 흡연구역 지정 장소까지 협의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운영 위원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학내 구성원은 총학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정우주(공공정책학 3)씨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흡연구역을 지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충대신문

공지 없이 시작된 공사로

갈 곳 잃은 학생들

동아리 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갈 곳을 잃었다. 충남대 교양관 옆 농구장에 별다른 공지 없이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곳은 본래 농구장과 족구장이 있던 곳으로 체전이나 백마리그를 개최하는 등 학생 운동시설로 이용돼 왔다. 운동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의 운동시설마저 없어지자 학생들의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다.

인문대 농구동아리 김민지(국어국문학 4)회장은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공지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창진 시설과 계장은 “공사현장에 알림판 등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사전에 전자게시판을 통해 전 기관에 공지를 했지만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체 부지를 찾고 있으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예산이 확보된다면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김동화 체육교육과 교수는 “운동선수들마저 체육관이 부족하다보니 일반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거점국립대로서 교내구성원을 비롯해 시민들 역시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연세춘추

기숙사 인터넷 문제로

학생들 불만 이어져

연세대 기숙사 인터넷 사용에 대해 사생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중간고사 기간 중 인터넷 접속이 중단된 문제는 최근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Smart-campus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고사 기간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이 중단돼 사생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아무개(인문과학부 14)씨는 “중간고사 기간에 인터넷이 중단돼 과제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불편이 뒤따랐다”며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중간고사 기간 보다는 방학 중에 공사를 진행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광케이블 포설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숙사 인터넷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계속됐다. 한솔계시판에 학생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사생회는 기숙사 인터넷 불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생회장 이정훈(보건행정 08)씨는 “설문조사 결과를 생활관과 정보통신운영부에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피해사례를 수집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북대신문

내년부터 기성회비 대신

수업료로 거둬

경북대는 내년부터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기성회비를 징수하지 않고 기존의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경북대 사무국 황경섭 재무과장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재정회계법은 기존 대학에서 징수하던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법안이다. 이어 그는 “대법원이 그동안 징수된 기성회비에 대한 환원을 명한다면 학교가 그동안 받은 기성회비는 전부 집행했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된 모든 자산 처리를 감당치 못해 파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기성회가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자신이 납부한 기성회비의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경북대의 1차 소송 총책임자 황지민(사회대 문헌정보 05)씨는 “재정회계법이 통과되면 모르겠지만, 법이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학교 측이 내린 결정은 비상식적인 것”이라며 “만일 기성회비 문제의 개선이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반값등록금’의 실현으로 이뤄진다면 고등교육의 구조 개선에 대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기성회비 폐지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 大學新聞

학생회관 가스 누출로

전원 대피 소동

서울대는 11월 2일 학생회관 4층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최초 목격자와 동아리연합회의 신속한 대처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리연합회 주무열 회장(물리천문학부 04)은 “오후 4시경 CCC(대학생선교회)동아리방에서 처음 가스가 누출돼 동아리방에 있던 학생들이 경비실에 신고했다”고 했다.

사고는 학생회관 식당 보일러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한 배기가스가 노후한 배기통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지원과는 “학생회관 식당에서 사용하는 보일러가 고장나면서 불완전연소가 진행돼 배기가스가 발생했다”며 “이 가스가 배기통에서 상태가 불량한 부분으로 누출됐다”고 했다. 고장난 보일러는 사건이 발생한 날 밤에 수리됐다.

분부는 문제가 된 배기통로를 이번 주 중에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시설지원과는 “학관이 지어진 후 배기통로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을 한 적이 없었기에 기존 배기통로를 정비하기보다는 배기통로 전체를 새로 교체하고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강의평가 제도 변경으로

학생들 혼란

충북대 강의평가 제도가 변경됐다. 기존에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수강이 종료된 후 성적 열람기간까지 1회만 실시하던 강의평가를 이번 학기부터 2회로 늘린 것이다. 변경된 강의평가 제도에 따라서 학생들은 중간고사 권장기간 다음 주와 기말고사 권장기간 전 주, 총 2회에 걸쳐 강의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된 강의평가 제도에 대해 많은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강의평가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성적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실시 일절이나 방법 등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민진(소비자학과 1)씨는 “강의평가 제도가 변경됐다는 것을 친구를 통해 들었다”며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학사와 민명기 팀장은 “문자 메시지와 메일을 통해 공지를 했으나 활발한 홍보와 공지가 부족했다”며 “처음 시행되는만큼 학생들을 고려해 1차 강의평가 기간을 연장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강의평가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진지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리=유주연 기자

#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소정한(短小精悍)’

〈 짧고 작은 것이 정밀하고 세차다 〉

기고 동유럽 여행기/ 큰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양명수  
영어교육과  
 명예교수

물리적인 시야의 확대를 통하여 정신적인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여행의 매력일 것이다. 옛날 공산권으로 분류되었던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일거에 깨우쳐 준 것이 얼마 전에 다녀온 이 지역 여행이었고, 동유럽 중에서도 나의 관심을 크게 끌었던 나라는 체코였다. 서유럽에 비하여 산업화 발전이 한참 더디었고, 나치스 독일과 볼셰비키 소련의 철권통치 하에서 인권과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왔으니 필시 삭막하고 궁핍한 나라일 것이라는 나의 예상은 나의 한심한 무지의 소치였다.

◇동유럽에 대한 인식을 바꾼 체코 여행

놀람게도, 프라하를 비롯한 체코의 여러 도시들은 파리나 로마에 못지않은 세계적인 관광명소였다. 그러나, 체코 관광의 매력은 많이 달랐다. 한때 유럽문명의 주류를 이루었던 로마나 파리의 관광명소가 대체로 웅장하고 거대한 것들이라면, 체코에서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은 조촐한 규모의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것들이었다. 위압적인 거품을 우리러보는 느낌과 오묘모질 잘 가꾸어진 아늑한 정원 안에 들어온 느낌의 차이라고나 할까. 구(舊)소련의 지배를 받던 동구권 여러 나라들은 고대 이래로 세계를 호령하고 식민지를 지배하는 강대국을 이루어 본 적이 없었고, 서유럽이 주도했던 근대적인 산업화와 과학혁명의 혜택이 덜 미친 지역이다. 또한, 인간욕망의 무한확대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메카니즘에 의해서도 덜 부대낀 나라들이다. 내가 둘러본 동구권 어느 나라에서도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판테온신전, 파리의 개선문이나 에펠탑 같이 웅대한 건조물들이 관광안내서를 장식하고 있지 않았다.

◇역사를 고이 간직한 프라하

프라하의 관광명소들이 역사의 향기를 고이 간직할 수 있음은 이 나라에 근대화 물결이 약했기 때문이라니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이곳에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은 구도심 시기지 전체이다. 프라하 구시청사에 붙어있는 (600년 역사)의 옴로로이 천문시계탑은 (150년 역사인) 런던의 빅벤 시계탑에 비해 훨씬 작은 것이었지만,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희한한 스토리 때문인지 엄

청 많은 관람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우아한 직색 지붕의 옛날식 주택가, 자연 그대로의 스카이라인이 잘 보존된 몰다우강 강변에서 조영된 은은하게 반짝이는 야경, 몰다우강을 가로지르는 (600년 역사를 간직)한 옛날식 석조다리 까를교(橋), 이 같이 웅장하지 않은 것들이 프라하 최고의 관광명소이다. 역사가 오랜 명승고적지인 프라하성(城)은 전쟁터의 삼엄함보다는 편안한 별장 같은 느낌이 들었고 멀리서 보면 정교한 조각작품 같은 느낌을 주었다. 프라하성 안에 있는 체코 대통령의 관저는 국가원수의 거처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이었다. 관광객들은 대통령 관저의 경비병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았는지 경비초소를 배경으로 함께 팔짱을 끼고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고 있었다.

◇평범함을 추구하는 체코 국민들

체코 국민들은 크고 강한 것, 위세 떨치는 강대국의 역사를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 것일까.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두 나라로 분리된 내력을 들으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 같이 서(西)슬라브족에 속하는 이들 두 나라는 민족과 언어가 거의 같으면서도 수백 년간 외세의 침입과 지배를 받으면서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걸어오다가 20세기 초에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단일 국가로 통합되

면서 우리 한반도의 분단문제를 풀어갈 때의 반면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체코 국민들에게는 위대한 조국의 영광보다 오히려 웃는 그날그날의 삶, 인간다운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일까. (체코산 맥주는, 값은 싸고 맛은 전하기로 유명하다.) 이 나라는 나치스 독일군의 침공을 받았을 때 단 이틀만에 항복해버렸기 때문에 역사의 소중한 유물유적을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유럽전지에서 폭격당해 보지 않은 역사가 오랜 기차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프라하역(驛)은 연애영화 이별장면을 찍는 촬영장소로 국제적으로 유명하다는 얘기였다. 장엄한 역사가 담긴 영웅서사시보다는 평범한 생활인의 오묘한 서정시나 휴먼 드라마가 존중받는 곳이 이 나라인 것 같다. 체코 국민의 문맹률은 1%대로서 교육열 세계최고인 한국인들보다 낮으며, 600년 역사의 프라하대학은 유럽 굴지의 명문대학으로 통한다고 한다. 이 나라는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프란츠 카프카, 밀란 쿤데라 같은 세계적인 소설가들을 배출하였고, 바츨라프 하벨 같은 시인 대통령(1993~2003)이 등장할 정도로 예술가가 존경받는다는 얘기였다. 세계인의 심금을 울려주는 스페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이나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이 나올 수 있는 나라인 것이다.

◇모차르트와 베토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음악가 모차르트가 체코의 프라하를 각별히 좋아했다는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모차르트는 오스



수수한 모습의 체코 대통령 관저가 프라하성 입구에서 보이는대 관광객들이 이곳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이 이채로웠다.

트적인 별장을 거처로 제공해주었으며, 이 작품의 프라하 초연 시에는 모차르트가 얼마나 신명이 났던지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이 직접 피아노를 쳤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동유럽적 기질의 모차르트와 서유럽적인 기질의 베토벤을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서유럽 독일의 본을 충실히 하는 베토벤은 고뇌로써 창작하는 예술의 대가였고, 동유럽 오스트리아 출신인 모차르트는 유쾌하게 즐기는 예술의 대가였다. 베토벤 음악의 장중한 분위기는 그의 초상에서 나타나는 고뇌에 찬 표정과, ‘운명’, ‘영웅’, ‘합창’, ‘비창’, ‘장엄’, ‘황제’, ‘열정’ 등 그의 대표작품들에 붙여진 거창한 별칭들에서 감지할 수 있다. 한번 악보에 옮긴 즉흥적인 악곡을 고칠 필요가 없었다는 모차르트의 음악은 단순 편이 경제 우아한 느낌이어서 장엄하고 격렬함을 특징으로 하는 베토벤 작품과 대비된다.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보다도 더 동유럽적인 체코의 프라하를 좋아했던 것은 그의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성정에 들어맞았기 때문이었겠다. 심각하고 거창한 주제를 좋아한 베토벤은, 모차르트 음악을 통속적이라는 이유로 싫어했다고 한다. 남바 바람둥이들이 진탕 놀아나고 망신당하는 것을 보며 웃고 즐기는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코지 판 투테’ 같은 모차르트의 대작 오페라들을 가소롭게 여겼다는 것이다.

서유럽의 강대국들은 세계지도를 바꾸는 역사의 주역이었고, 베토벤 음악은 역사창조의 주역에 어울리는 크고 높은 물결의 감동을 준다. 그러나 큰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닐 터이다. 웅대한 창조의 압박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즐기는 모차르트 음악처럼 잔잔하고 부드러운 물결의 감동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 로컬뉴스

### 학생들의 상상력과 잠재력 무한 개발 ‘2014 제주발명축제’ 서귀포에서 열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주최한 ‘2014 제주발명축제’가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서귀포시 제주월드컵주변광장에서 개최됐다.

학생들의 상상력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창의적 능력 향상과 발명품도 조성을 위해 열린 대회는 ‘상상을 현실로’란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발명·경연대회, 창의적 문제해결 부스, 도전과제, 전시, 강연 등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29개 프로그램에 추가로 마련하고 46개의 부스시설을 늘려 참가자들의 다양한 체험을 도왔다. 발명·경연대회는 스쿨드림 경연대회 △투석기 공성전 △태양광 자동차 경주대회 등으로 구성됐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5개 부스, 53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는 본 행사를 수행하는 제주학생발명교육연구회를 비롯해 도내 발명교육센

터, 전국 발명교육 단체, 서귀포지역 중·고등학교와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마련한 다양한 체험과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작물 응출 프로그램, 우수 발명아이템 전시 등으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발명 이라는 체험’을 통해 발명이러린 콘텐츠를 학습하고, 언제 어디서든 발명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방법을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발명의 생활화 분위기 마련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 강연과 특허, 상표 등 출원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는 ‘변리상담’ 시간도 마련됐다.

발명축제에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발명에 관심이 많았지만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궁금한 것도 많이 해결하고 주변 참가자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금번 행사는 재미있고 다채로운 체험 중심의 발명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학생들의 사고·창의력 증진과 더불어 과학·기술, 발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제주가 발명교육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한·중 FTA 전략 수립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대책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한·중 FTA의 효과적 전략 수립을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한·중 FTA협상은 9월 26일 제13차 협상까지 상봉분야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양국이 10월 중순과 하순, 두 차례 걸친 비공식 실무회의를 개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린 APEC정상회담을 통해 FTA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한·중 FTA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련기관·단체와 FTA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긴급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11월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할 대정부 건의문이 작성됐다. 이어 11월 4일에는 원희룡도지사가 직접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을 방문했다. 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1차산업 보호를 위해 감귤, 당근 등 농산물과 양식광어 등 수산물에 대한 양허제와 관철을 강력히 건의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는 한·중 FTA 대응과 병행해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팀을 구성한다. 이들은 △전천후 농업기반 조성 △개방화시대 경쟁력있는 품종개발 △기후 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작물재배 지원 육성 △제주 청정농수산물의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6차산업 육성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곱들락한 제주 길 이야기’ 지역문화 특성화 위해 발간

제주특별자치도가 ‘곱들락한 제주 길 이야기’ 책자 500권을 발간했다. 제주도는 도로명주소체계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도민들의 적응 불편등이 제기됨에 따라 실생활 속 도로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광자원화를 위해 책을 발간했다. 책자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아래 도로명 3908개 노선 중 제주만의 독특함을 느낄 수 있고 지역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설명하도록 구성됐다. 또한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700여개의 도로명을 선정했다. 이에 덧붙여 700여개의 도로명 유래를 소재로 해 노선과 연관된 주변 지역의 유래, 역사적 인물, 설화(민담, 전설 등), 생활풍습 등에 얽힌 이야기를 담았다. 이는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문화를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구성했다.

특히 탐라 천년의 중심지 판덕로, 나눔의 삶을 개척한 김만덕 통문로, 탐라 개국의 신화 삼성로 등 105개 테마를 주제로 역사적 사실과 뒷 이야기를 포함했다. 이야기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앞으로 제주도는 책자를 도민과 관광업체 등에 배부해 내 고장을 알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이야기를 가미한 도로명 해설을 통해 이해하기 쉬운 도로명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아라초대석 〈9〉현행복 성악가·동굴소리연구회 대표

## “동굴에서 개척하는 나만의 길”

‘나의 길을 걸으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게 내버려 뒀라’ 시인 단테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을 가기위해 노력하고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현행복 (59)성악가·동굴소리연구회대표를 만났다.

“대학원에서 성악까지 전공한 사람이 왜 굳이 위험하고 어두운 동굴에서 음악을 하려는지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자연의 본질을 따라가기 못하기 때문이죠. 저는 자연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현행복 대표는 제주대 82학번으로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영남대학원에서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영남대와 제주대에서 강사를 하며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다. 강사생활을 하던 중 열악한 환경에서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안타까워 소리의 공명이 좋은 동굴을 찾아 다니게 됐다.

“처음에는 딱딱한 콘크리트 벽을 앞두고 연습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학생들이 안타까워 동굴이라는 자연적 공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5년동안 동굴소리연구회 사람들과 함께 제주지역의 20여개 동굴을 돌아다니며 직접 노래 불러 음향조건을 분석했어요.”

각 동굴마다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해안동굴이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생각을 한 현대표는 때마침 우도 검멀레 해변에 있는 고래굴을 발견하게 됐다.

“고래굴은 파도소리 등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동굴보다 소리를 내기에 완벽했습니다. 또한 썰물 때 음악회를 하다보니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쏟아 붓는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런점에서 동굴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고 그 매력에 빠지게 됐죠.”

그런 그에게도 선택의 갈림길에 존재했다. 10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자 현 대표에게 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러나 교직의 유혹을 뿌리치고 새

로운 도전을 위해 다른 길을 걷게 됐다. “교수가 됐다면 경제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겠죠. 많이 아쉬웠으나 후회는 하지 않아요. 안정적인 직장생활과는 달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이었어요. 도전을 통해 저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기존의 틀에서 뛰쳐나왔죠.”

그는 제주의 특색 있는 음악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곳에서 매년 다른 주제를 정해 그에 알맞게 게스트를 초청했다. 또한 10여년간 동굴음악회와 용연계곡에서 열리는 용연선상음악회 등을 개최하면서 타 지역사람들이나 도민들에게 신선함을 느끼게 했다. 매년 열리는 음악회에서 그는 총암 김정선생이 지은 우도가를 번역해 부르기도 했고, 허벽장 단에 맞춰 제주민요를 부르기도 했다.

동굴음악회를 할 때 많은 위기도 있었다. 예상치 못한 날씨 때문에 연기된 적도 있었고 악기들이 파도로 인해 모두 휩쓸린 적도 있어 음악회를 포기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자신에게 채찍질하며 자신만의 철학과 위기 관리능력으로 고비를 넘겼다.

“7년 전 멘델스존 서곡의 배경인 핑갈의 동굴을 찾아 스코틀랜드를 갔었는데 막상 핑갈의 동굴을 가보니 고래굴보다 기만만 작을 뿐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고래굴이야 말로 세계적인 동굴이냐’라고 말이죠. 내년이면 동굴음악회가 20회를 맞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소리를 들으며 연주를 한다는 것에 큰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항상 자신에게 ‘나의 길을 걸으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게 내버려 두어라’고 충고하며 산다는 현행복씨. 어쩌면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주변환경에 민감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자제가 아닐까 싶다.

김해건 기자



현행복 대표(왼쪽)와 현대표가 현재 개최하고 있는 동굴음악회(오른쪽).

### 제주의 아름다운 비경담은 ‘제주, 그 아름다움’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원장 양영환)이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제주, 그 아름다움’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회원들의 사진작품 40여 점이 준비됐다. 사진전에 작품을 출품한 송정훈씨는 “바다부터 한라산까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시간각각 변화하는 찰라의 아름다운 제주의 비경들을 사진에 담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변화하는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새롭게 새겨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에서 제주의 아름다운·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연중·전시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널리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새마을금고연수원서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 개최한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이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열렸다.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차세대 리더들 간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는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 미래의 주인’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베트남, 오만, 미국, 러시아 등 7개국 17개지역에서 123명(고등학생 99명, 인솔교사 24명)이 참가했다. 제주대표 참가단은 36명(학생 32명, 교사 4명)이 참가했으며, 개회식 및 폐널토론에는 도내 중·고등학생 300여명이 추가로 참관했다.

포럼은 각 참가자들이 서로를 알리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기초강연, 제주문화체험이 이어졌다. 셋째 날인 11월 8일에는 세계의 주요 이슈들을 고민하는 영어패널토론이 열렸다. 9일에는 모든 참가자가 제주자연유산을 탐방하고 폐회식과 폐널 토론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국제청소년 포럼의 정기적인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며 “제주의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정리=강수빈 기자

교수시론



신웅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세계적 협동조합 복합체인

몬드라곤의 경험을 보고

외지자본의 주도가 아닌

도민주체의 경제발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

최근 제주에는 중국자본이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토지 잠식과 투기,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 제주까지 훼손 등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제주가 중국자본 등 거대 외지자본과 맞설 수 있는 제주만의 경쟁력을 갖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방법은 없을까.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협동조합 복합체인 몬드라곤을 소개하고자 한다. 몬드라곤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몬드라곤은 스페인 내 바스크 지역의 산악도시인 몬드라곤의 이름을 딴 협동조합 복합체이다. 바스크인들은 스페인 문화와는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며 자치권 획득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930년대 스페인내전 때 자치권을 약속한 공화군 정부 편에 섰다가 수만 명이 총살 등 죽임을 당한 아픈 경험도 있다. 피카소의 걸작 〈게로니카〉는 당시 독일군 공습으로 폐허가 된 바스크의 옛 수도 게로니카의 참상을 고발한 작품이다.

몬드라곤은 바스크 지역의 이러한 지리적·문화적·역사적 특성에 호세 마리아 신부라는 천재적인 리더가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호세 마리아 신부가 1941년 몬드라곤 지역에 주임 신부로 부임했을 때 주민들은 극심한 빈곤과 실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스스로를 피정복민이라고 생

몬드라곤과 제주

각하며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다. 호세 마리아 신부는 주민들의 가난과 패배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1943년 기술전문학교를 설립했다. 이렇게 설립된 기술전문학교는 훗날 몬드라곤을 구성하는 협동조합들의 설립과 발전에 기반이 됐다.

기술전문학교 졸업생 5명이 주축이 되어 1956년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인 울고(ULGOR)를 설립했다. 이로써 몬드라곤의 첫 번째 협동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울고는 초기에는 기술문제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조합원들의 민주적 경영과 창조적 노력을 바탕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60년대 초반에 이미 스페인 내 100대 기업 중 하나가 됐다.

협동조합의 가장 큰 맹점은 자본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호세 마리아 신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1959년 협동조합은행인 노동인민금고를 설립했다. 노동인민금고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몬드라곤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울고의 비약적 성장과 노동인민금고의 지원 등에 힘입어 아라사테, 코프레사, 에델란 등 다른 노동자 생산협동조합들도 울고와 밀접한 관련을 맺기 시작하면서 몬드라곤이 형성됐다.

몬드라곤은 1980년대 중반 경기침체로 고전을 겪

기는 했으나 그 이후 고속성장을 지속하여 2010년 기준으로 금융, 유통, 제조업, 지식 등 4개 분야에서 111개의 협동조합, 120개의 자회사 등 총 255개의 사업체들을 거느리며, 약 8만4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매출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거대그룹으로 성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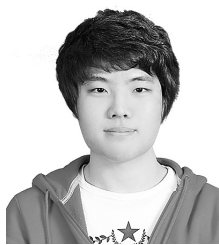
몬드라곤의 최고 관심사는 이윤 창출이 아니라 고용의 유지 및 확대이다. 그런 까닭에 몬드라곤은 조합원 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어떤 협동조합이 경영 악화로 인원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재교육을 통해 고용여력이 있는 다른 협동조합으로 배치한다. 경기침체 시에도 이러한 무해고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해고의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는 꿈의 직장이라 할 수 있다.

스페인과는 다른 문화를 가진 바스크 지역의 특성,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때의 비극 등의 점은 묘하게도 제주와 닮은꼴임을 느끼게 한다. 제주 역시 한반도 본토와는 지리적·역사적·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고, 좌우대립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도민이 학살당했던 4·3의 아픔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몬드라곤의 기적이 일어나 외지자본 주도가 아니라 도민 주체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는 없을

〈월 스트리트 저널〉이 꼬집은 제주의 박물관

돌하르방



강수빈  
취재기획부장

“

차별성 없이 들어서는

박물관을 벗어나

본래의 의미를 되새겨야

”

천만 관광객 시대, 세계적인 관광지 등과 같은 미식 어구를 누구나 언론매체를 통해 쉽게 접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현 상태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표현이다. 제주가 관광도시로 자리 잡음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천만 관광객이란 지표에 눈이 먼 제주도는 지금 ‘상업화’란 바이러스에 쪼들고 있다.

최근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은 제주도의 상업화 문제를 꼬집으면서 그 중 제주도의 박물관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은 제주도에 지나치게 많은 박물관이 생기고 있다며 과연 박물관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설립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기사를 상세하게 다뤘다. 제주도정청은 박물관을 건립하는 이들에게 세금을 최대 70%까지 면제해 주고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도내 박물관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물관이 늘어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수많은 박물관들이 세제 혜택을 받는 ‘상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많은 젊은 층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성 박물관, 초콜릿 박물관, 녹차 박물관 등도 한 어디서 가 본 듯한, 어디서 본 듯한 시설이 전부다. 어째서 이런 껍데기들뿐인 박물관이 생겨나는 것일까.

다시 한 번 도내 박물관 건립 기준을 살펴보자. 제주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1급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전시품 100개 이상과 저장 공간, 사무공간, 도난방지 시스템, 온도조절장치만 갖추면 그만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또한 제주도 내의 박물관 설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테마가 유사한 박물관들이 차별성 없이 생겨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박물관업계 관계자는 “제주도내 박물관의 개수가 어느덧 100군데를 넘었다”며 “성 박물관, 초콜릿 박물관 등 테마가 중복되는 곳이 최대 8곳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도내 테마 박물관 10여곳을 돌아다녀본 결과, 대다수의 박물관들이 박물관 본연의 ‘전시’ 기능을 신경쓰기 보다는 판매를 위한 관련 상품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팔아먹을 수 있을かを 고민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녹차 박물관의 경우, 녹차의 생성 과정을 한 눈에 설명해주는 코스의 마지막을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가게로 꾸미는 등 판매 유도가 도를 지나쳐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였다.

“박물관을 단지 전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느 기업이든 트렌드에 맞춰 자신들의 상품이나 관련 이벤트를 준비하기 마련인데 어째

서 박물관이 상업화 코드에 맞춰 수익을 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이는 한 박물관 업자에게 직접 들은 답변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박물관의 인식이 ‘지루하다, 지나치게 학술적이다’는 편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가볍게 볼 수 있는, 가족들이나 연인들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박물관은 변화를 거듭했다. 그리고 카페도 아닌, 음식점도 아닌 모든 것이 뒤섞인 제3의 공간이 박물관이란 이름표를 달고 탄생하게 됐다. 하지만 도내 수백 개가 넘는 박물관이 과연 ‘박물관’이라 불릴 수 있을까.

‘고고학적 자료, 역사적 유물, 예술품, 그 밖의 학술 자료를 수집·보존·진열하고 일반인에게 전시해 학술 연구와 사회 교육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든 시설’ 이것이 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박물관의 본래 의미다.

천만 관광객이란 허울좋은 표현에 사로잡힌 제주도는 요란한 빈수레로 전락하고 있는 박물관을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넓은 공간에 볼거리가 많은 건 물이라고 박물관이 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박물관,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다시금 떠올리게끔 만들어주는 소중한 문화재를 다루는 박물관이 그림자다.

독자기고

무관심의 침묵 깨야 우리사회 안녕



고연진  
사회교육과 1

자신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중·고등학생 시절 제 앞가림하기엔 바빠 세상의 일에는 무심했었다. 시간이 흘러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들이 내 일이라 느껴지고 세상의 어두운 면면들이 머리에 들어왔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고, 그 후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논의가 사회에서 활발했다. 현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월호에 관한 수많은 말들을 들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주 듣는 말에는 감정이 무뎌진다. 침몰 사고 직 후 내 일처럼 마음 아파했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대학 사회에 던져지는 작은 파문이다. 크게는 한 덩어리인 동시에 작게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 있는 대학에서 우리는 많은 힘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제주대 정문에서 지난 6월 16일부터 5일 동안 유가족의 마음이 반영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이 진행됐다. 이 서명에는 총 3720명이 참여했다. 서명 운동은 제주대 학생, 외국인 유학생, 교수님, 셔틀버스 기사, 학교 관리인, 행정 실무자, 가게 점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따뜻한 마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이 후 주마다 열리는 세월호 문화제, 제주대 정문에서 출발하는 노란 우산 행진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이런 활동을 하고 비로소 내 눈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있지만,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존재한다.

1991년 8월 14일 본인이 위안부였음을 최초로 증언하셨던 김학순 할머니를 기억하는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우리 사회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매주 수요일 정오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뤄지는 수요 집회는 2014년 현재 2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세계 최장집의 집회이다.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역사가 쓰이고 있다.

대학관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고, 뜻있는 대학생들이 함께 ‘평화나비’라는 동아리를 만들고, 각 대학별로 연계되는 ‘평화나비 네트워크’가 2014년 9월 20일 공식 발족했다. 9월 첫째 주에 대학성평화나비 대표와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대표를 만나고, 우리 제주대 학생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미성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요 집회에도 참가해보고, 할머니께 편지도 드리는 과정에서 또한 스스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 후 제주에 내려온 나는 뜻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제주 평화 나비를 만들었다. 이런 마음이 모여 10월 4일 제주에 김복동 할머니, 김원옥 할머니가 내려오셨다. 그리고 10월 6일에는 사범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할머니의 강연회가 열렸다. 학내 캠페인에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사회에는 나 자신과 주변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이 일들은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사회를 변화시킬 원동력을 가진 여러분이 자신의 세상에 많은 힘을 쏟고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우울증, 숨기지 말고 도움 청하세요



최다은  
국어국문학과 2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울증’은 우리와는 먼 얘기이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텔레비전을 틀면 일주일에 한번은 들을 수 있는 말이 됐다. 마음의 감기라는 말처럼 우울증을 단순히 혼자서 치유할 수 있는 기분의 변화로 보는 관점도 있다. 과연 우울증을 이처럼 가볍게 다뤄도 될까.

악한 경증의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만 봤을 때 우울증은 자가 치유가 가능한 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깊게 살펴보면 우울증의 폐해는 심각하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자살, 살인 등의 중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던 60대 아버지가 공무원 시험에 낙방해 장기간 무직생활을 하는 30대 아들을 살해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에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30대 엄마와 4살 아들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현대사회는 물질의 소유가 곧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물질을 숭상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사람보다도 돈이 먼저인 가치전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울증 환자를 가운대는 사별, 이혼 또는 별거 중인 상태나, 가족생활의 만족도도 낮은 편이 많다. 이는 가정에서의 안정감이 부족해서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들도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우울증은 결코 가볍게 넘길 질병이 아니다. 그러나 불치병 또한 아니므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우울증의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안전망의 보완과 확충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개혁의지를 가지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야한다. 그리고 지금 각 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뤄지는 심리상담에 대한 홍보를 늘려야한다. 각 시·도·구·리 환자들의 개선에 도움이 된 프로그램을 공평한 환자들에게 치유의 기회로 제공할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는 상담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상담비용이 두렵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주위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랑과 베품의 자세를 함양해야 한다.

전문상담가가 말하길 우울증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본인이 다가가고 노력하고 싶지만 그러기엔 병에 너무 지쳤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이란 원래 서로 돕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옆에 있는 그분들이 너무 지쳤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면 된다. 이런 도움을 통해 환자분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삶을 살아나갈 의지와 열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다 삶의 늪에서 살고 있다. 고통이 너무 클지라도 결국엔 없어지며, 상처가 깊을지라도 새살은 돌아난다. 힘들어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겨낼 수 있다. 앞으로 살아간 늪을 건너며 지칠 때 노래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노래를 들으며 힘도 내고 삶의 여유를 가지며 살면 좋겠다.

날카로운 지식, 행동하는 지성

동문칼럼



김유정  
미술교육과 8학번  
미술평론가

나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주체다. 비극도 행복도 내가 느끼고 내가 누린다. 하물며 죽음까지도 말이다. 결국 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므로 존재는 슬픈 것일까.

우리에게는 각자의 인생이 있다.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스스로 그 존엄성을 지켜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는 관계를 벗어나기 힘들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제도 속에서 공생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시대는 야만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야만의 시대란 지금껏 소중하게 지켜오던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를 말함이다.

세삼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국가란 말 그대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적 시스템이 아닌가. 국가는 성벽과 같다. 성벽은 두 가지의 음양을 떠올리게 하는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국민을 성안에 갇혀 있게 가두는 울타리가 되기도 한다.

어쩌면 성벽에 비유되는 우리사회를 일러 위험사회와 통제사회라는 말이 적절하다. 통제사회와 위험사회란 과학과 미디어와 깊게 관련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통제사회란 어떤 수단에 의해 감시받고 국민의 자유와 행동을 제약하는 사회이다. 사실상 사회악, 혹은 공공의 적으로부터 안전과 신변을 보호해준다는 이면에는 다시 통치를 위한 합법적인 간섭, 검열, 온갖 금지가 횡행하게 되고 급기야 스스로 자신을 규제하는 자기검열의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는 사회다.

위험사회란 문명이 발달할수록 위험의 범위와 규모는 더 커지게 되는데 편리한 만큼 위험 수위는 더 높다. 원자력 산업과 교통수단이 편리한 대신, 그것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이런 재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적 차원의 재난들이 국가가 아닌 민영화 된 기업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우리사회의 과도한 민영화는 점점 더 기업 국가라는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위험은 기회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기회’라는 올리히 벡의 말은 새롭다. 위험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위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로부터 이윤을 얻은 사람들 간의 적대기 발전하는데 위험마저도 완전히 자본주의의 논리에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물론 행복의 종류와 척도가 다르겠지만 분명 시대마다 행복의 상(像)이 존재한다. 돌아보면 어떤 고난도 굳게 견디며 이겨낸 것은 권력자 때문이 아닌 국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였다. 결국 퇴행하는 지금의 사회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우리들 몫이 돼버렸다. 우리 자신이 한 치의 노력도 없이 어찌 진정한 행복을 바랄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 지식탐(知識), 세계에 대한 관심 등 세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열정이란 관심 있는 영역에 다가서는 적극적인 심리적 행동이다. 그런 뜨거운 감성은 실천을 강화시켜준다. 지식탐이란 전문성을 위한 학문적 애정으로서 우리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세계에 대한 관심은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온갖 해악들에 대한 지성인으로서의 참여와 고뇌를 말함이다.

오늘 우리에게 날카로운 지식인의 모습과 행동하는 지성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단통법’ 이제 손 보자



고동은  
경영학과 1

10월 전까지만해도 핸드폰의 구매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동일한 모델의 핸드폰이 하루는 10만원, 다음 날은 80만원, 심지어 누군가는 공짜로 구매할 수 있었다. 몇 년전 까지만해도 이렇게 핸드폰의 구매가격이 제각각인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핸드폰의 비정상적인 시장가격의 차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짐에 따라 사람들은 더 싼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이리저리 발품을 팔았다.

이런 현상을 단 한번에 변화시켜버린 사건이 있었다. 소위 ‘호갱화’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정보를 알아본 소비자들에게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이 다가온 것이다. 단통법이란 핸드폰 보조금을 공평하게 해 소비자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이 가게끔하겠다는 취지에서 생긴 법이다. 법이 시행된 10월부터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보조금 상한 규제가 시작됐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넘은 11월, 소비자들의 핸드폰 구매의사 심리는 위축됐다. 보조금 지급액이 상한규제 돼 모든 소비자들이 지불하게될 핸드폰 가격은 비슷해졌다. 하지만 핸드폰의 출고가격은 그대로거나 변동폭이 적어 골고루 혜택이 가기는 커녕 그동안 저렴하게 구매를 하던 소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됐다.

단통법 시행전까지 막대한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던 이동통신사는 단통

법 시행 이후로 경쟁이 줄어들어 전에 비해 지출비용이 훨씬 줄었다. 정부는 이런 현상이 곧 이동통신사의 요금경쟁으로 요금인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단통법의 시행은 결국 소비자 몫을 더 가져가고 이동통신사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스마트폰이 도입되고부터 소비자 가게에서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것은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할인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하지 않고 단말기 판매를 함에 따라 생긴 비정상적인 소비자 구조 때문이다. 그들이 기존의 단말기 판매가(보조금)를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그것을 막으니 시장경제가 역행하게 된 것이다. 올바른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추기게 정부 역할인데 정부는 그나마 이동통신사들이 하던 경쟁을 막은 것이다.

현재는 근본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한다. 제조사는 출고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통신사는 단말기 유통의 수익창출이 아닌 요금을 통해 경쟁을 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경쟁이다. 이동통신사는 요금을 통해 경쟁해야 한다. 그러다만 제조사가 시장에 뛰어들어 유통을 해 가격 경쟁을 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단통법처럼 모양새만 규제인 법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나 정책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064) 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un.ac.kr

» **총학생회 입후보자 인터뷰 - SO아라** 선거운동본부



‘SO아라’ 선거운동본부 정 - 원일권 (영어영문학과 4. 왼쪽)  
부 - 현지훈 (에너지공학과 3).

## ‘SO아라’는 아라인만을 위한다는 의미 “대동제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겠다”

▶출마 동기.  
“정후보자는 영어영문학과 회장과 인문 대학 회장을 지냈고 부후보자는 에너지공학과 회장을 역임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또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을 했다. 회장 직을 역임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응원해줬다. 잘 할 수 있고 잘 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학생들을 위해 먼저 발 벗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며 좋아하는 일이다.”  
▶‘SO아라’ 슬로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슬로건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째로는 ‘SO’라는 영문법적으로 강조의 의미이다. ‘SO아라’로 아라인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라인만을 생각하겠다는 의지이다. 두 번째는 ‘Sound Of’의 약자이다. ‘Sound Of아라’로 아라인의 목소리를 들겠다는 것이다. 아라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는 음성 그대로 ‘쇼아라’라는 의미이다. ‘우리들의 열정과 꿈을 쇼아라’라는 의미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  
“우선 정책에는 눈빛이 없이나 똑같다고 생각한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더 중요한 공약이 바뀌는 것이다. 모든 공약이 다 똑같고 지켜야 하는 공약들이다. 그렇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대행사 없는 축제’를 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축제는 총학생회에서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총학생회는 무대 내의 기획만 하는 것이다. 축제 기획·진행에 있어서 대행사를 얹고 싶다. 대행사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하청을 주면서 대행사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것이다. 자칫 어설픔께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지만 정말 학생이 직접 만드는 축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행사를 없애서 얻게 되는 비용은 단과대학이나 과 행사 운영에 지원을 하고 싶다.”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안.  
“폴센터라던지 SNS를 통해 소통하겠다는 것은 방안이 아니다. 많은 곳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총학생회와 학생들의 소통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총학생회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통을 하자’며 도서관 밖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서관에서 더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다. 총학생회 덕분에 편해졌다는 것을 느끼면 관심이 생기고 서로가 더 발전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위치에서 총학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평의회 참여에 대해.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평의회에 대한 권리요구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권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재 참여권은 있지만 의결권이 없다. 평의회에서 의결권 2-3표를 얻는다고 해도 미약하다는 것을 알지만 표의 힘을 믿는다. 또한 의결권이 있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 수보다 의결권을 획득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운동장에서 아라대동제 진행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방안.  
“대운동장에서 대동제를 진행할 때 문제점은 육상부 학생들의 원성이다. 육상부 학생들의 원성은 올해 전국체전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육상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 파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른 경기장에서도 축제 때처럼 패드를 설치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캠페인을 할 것이다. 또한 제주대 아파트에서의 소음 민원은 축제를 축제가 아니라 ‘소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제주대 아파트 주민들도 축제를 ‘축제’로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주대 아파트 내의 유치원생들이 즐길 수 있는 체임 부스 등을 기획하여 제주대 아파트 주민들도 하나의 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교내 순환버스에 대한 의견.  
“현재 교내 순환버스와 학교는 상황적으로 학교가 유리 상태다. 하지만 학교가 유리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교가 유리 됐기 때문에 학생이 그에 수긍하고 불만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 갑과 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학생을 위해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학생회와 학교가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버스 모니터링을 도입해 순환버스 회사 측과 즉각적으로 얘기를 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것이다.”  
▶‘레포트 돌려받기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우선 수강 편람이 나오면 학과와 교수에게 총학생회기 공문을 보낼 것이다. 또한 총학생회 자체에서 레포트에 대한 피드백란이 있는 레포트 표지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레포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제대로 된 학생 평가가 이뤄지고 학생들은 그것을 토대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많은 교수도 협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유주연 기자

| 주요공약                    |
|-------------------------|
| ▶총학생회 운영자금 공개           |
| ▶평의회 의결권 취득             |
| ▶기성회비 조율과정 공개           |
| ▶아라대동제 대운동장서 시행         |
| ▶레포트 돌려받기 운동            |
| ▶강의 계획서 수정 추진           |
| ▶필수 교양 과목 E-Learning 개설 |
| ▶모의 토익 응시료 지원           |
| ▶각 단과대학 세미나실 강의실 도입     |
| ▶정문 식당가 도로 정비 사업 시행     |
| ▶구제주 버스 노선 신설           |
| ▶서귀포행 5·16 심야 버스 확대     |
| ▶대운동장 낚시 계단 설치          |
| ▶한라대 평탄화 추진             |
| ▶학내 PC 개선               |
| ▶학생회관 2층 대형거울 가림막       |
| ▶도서관 급속 충전기 설치          |
| ▶도서관 내 공기청정기 보급         |
| ▶학생회관/제2도서관 도서 반납기 설치   |
| ▶대운동장 LED 시계 설치         |
| ▶비상대피훈련 실시              |
| ▶인문대 미끄럼 방지 스티커 부착      |
| ▶경상대 계단 안전등 설치          |
| ▶산천단길 과속방지턱·볼록거울 확대     |
| ▶빈 강의실 개방               |
| ▶SO나무술 운영               |
| ▶순환버스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 ▶기숙사 통금시간 연장            |
| ▶제2도서관 방음벽 설치           |
|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보호 대책       |
| ▶자전거 거치대 및 펌프 설치        |
| ▶학내 표지판 바로 잡기           |
| ▶금연 스티커 부착 운동           |
| ▶대행업체 없는 축제 만들기         |
| ▶4·3 대통령 방문 축구 문화제      |
| ▶학교길 이름 짓기              |
| ▶학내 주간지 비치              |

» **총학생회 입후보자 인터뷰 - 신세계** 선거운동본부

## ‘신세계’는 도전·열정을 펼칠 기회의 장 “모바일 학생증 신설… 중고서점 운영”



‘신세계’ 선거운동본부 정 - 김남주 (경제학과 4. 왼쪽).  
부 - 한권담 (전산통계학과 4).

▶출마 동기.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권위적인 자리가 아니라 일반학우 모든 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자리로 느끼게 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일반학우의 입장이었던 만큼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더 잘 듣고 대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통해 일반아라 학우들과 더 가까이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 출마하게 됐다.”  
▶‘신세계’ 슬로건의 의미.  
“신세계란 새로운 세계 또는 새롭게 생활하고 활동하는 장소나 경지를 뜻한다. 대학 내 학생의 최고의 가치는 도전과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학우들의 도전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일반아라의 학우들이 ‘신세계’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줄 학생회가 되고자 이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투명한 신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모바일 학생증 안에 학생회 페이지를 만들어 이를 통해 공약 이행 진행 과정과 예산이 쓰인 영수증을 빠짐없이 공개할 것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 돼있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 페이지를 보면서 학생회의 투명도를 판단할 수 있다.”  
▶모바일 학생증 공약에 대해.  
“그동안 학생증이 분실하고 파손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런 염려가 없는 모바일 학생증을 만들어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약을 계획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동아리와 의견을 나누어 모바일 학생증 앱을 만들 예정이다. 모바일 학생증 앱을 누르면 모바일 학생증, 생형과 연계된 시설 결제, 학생회 페이지, 학교 인근 자취방 정보 제공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도서관 이용에만 국한됐던 학생증에 도서관 자리배정, 도서 대출 기능도 추가해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학생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 행사와 학생회 소식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푸쉬 알림 기능도 있어 신속하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학생증 보안문제에 대해.  
“보안 문제는 타 대학의 사례들을 참고해 정보통신원과 학생복지과와 협의했다. 학생증의 바코드가 찍힌 후 30초가 지나면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바코드가 고장된 것이 아니라 사용되면 없어지는 일회성의 그치므로 현재 모바일로 사용되는 기프트 쿨과 같은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대학 내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총학생회는 일반아라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대학 내 약자가 없게 하는 것이 곧 총학생회의 역할이다.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부족하다. 장애 학우를 위한 시설들도 부족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힘든 부분이 많다고 한다. 이런 목소리를 듣고 신세계에서는 장애학우들을 위한 기숙사 식당 언덕길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숙사에 생활하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우들의 경우에는 기숙사 식당 계단길을 이용할 수 없어 먼 길을 돌아서 가야한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이 길이 고행길이 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기숙사 1호관에서 식당까지 이어지는 흙 언덕을 허물고 경사로로 바꿔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했다.

유학생의 경우는 제주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로가 적다. 따라서 신세계는 서울대의 대외협력국의 사례를 참고해 유학생 복지국을 창설할 계획이다. 유학생을 위한 복지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여러 나라의 언어로 작성해 유학생 학우들이 전보다 더 쉽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유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축제 때 유학생 부스를 운영하고자 한다.”  
▶‘진짜’ 총학생회의 공약들과 겹치는 것도 많다.

“새로운 공약을 내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학우들의 반응이 좋았던 일반아라 폴센터, 무빙워크 등 공약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와 같이 공약들을 내세웠다. 신세계는 이전의 공약들을 계속해서 시행하되, 시행 중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무빙워크는 이전보다 기간을 연장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또 타 지역 학우들은 학내에 집을 따로 맡길 수 있는 보관함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진짜’ 총학생회가 시행하는 현책방 같은 경우에는 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해 중고서점을 운영할 것이다. 백두관 식당 입구가 아닌 학생회관 내 위치한 서점과의 협의를 통해 서점의 일정 공간을 중고서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매학기 말 중고서적을 구입해 매 학기 초 시기에 맞춰 중고서적을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자에게는 교내 생활협동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형 기프트 카드를, 구매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깨끗한 책

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학우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제주대학교는 교통안전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비가 오는 날 밤에는 중앙선과 횡단보도의 구별이 쉽지 않다.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건나는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 형광차선 도입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조보운전자들의 사고 방지를 위한 카스토퍼 설치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돌발상황 대처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 행사 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강서윤 기자

| 주요공약                                    |
|-----------------------------------------|
| ▶모바일 학생증 페이지 신설                         |
| ▶장학금 매거진                                |
| ▶평의회 참여권 확대 및 의결권 획득                    |
| ▶등록금 동결 및 인하                            |
| ▶축제 때 해외 유학생 및 동아리축제, 다양한 테마 부스 설치 및 운영 |
| ▶축제기간 버스 아간 운행과 택시대기소 마련                |
| ▶콜리마켓                                   |
| ▶옴팡발 음악회                                |
| ▶해외 및 국내테마기행                            |
| ▶취업박람회                                  |
| ▶진짜사나이                                  |
| ▶형광차선 도입                                |
| ▶카스토퍼 설치                                |
| ▶산천단 버스정류장 정비                           |
| ▶정문 셔틀버스정류장 비가림막                        |
| ▶무인민원발급기                                |
| ▶대운동장 비탈길, 수목올타리 조성                     |
| ▶구제주권 버스노선 신설                           |
| ▶신세계 중고서점                               |
| ▶기숙사 아외침터                               |
| ▶장애학우들을 위한 기숙사 식당 언덕길 설치                |
| ▶기숙사 오르막길 가로등 설치                        |
| ▶수강신청 모의제도 시행                           |
| ▶모의 정책토론회                               |
| ▶정책 이행과정에 대한 공청회                        |
| ▶유학생 체육대회, 유학생 복지국 창설                   |
| ▶4·3 영상제 및 유적지 답사                       |
| ▶투명한 공약 이행                              |
| ▶DIR아라장학금                               |
| ▶일반아라 콜센터                               |
| ▶무빙워크                                   |

» **총여학생회 입후보자 인터뷰 - 소공녀** 선거운동본부



‘소공녀’ 선거운동본부 정 - 홍은혜 (전자공학과 3. 왼쪽).  
부 - 김수윤 (환경공학과 2).

## 소통과 편안함 통해 학우들과 공감나눌 것 임기내 대운동장 벽화사업 마무리

▶출마 동기.  
“우연히 ‘대학 총여학생회 존폐 위기’라는 주제를 다룬 신문기사를 봤다. 기사에 따르면, 총여학생회는 특정집단을 위한 단체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였다. 항상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와 차별이 아닌 차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기사 내용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많은 일반 아라들은 총여학생회는 여학생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부임후보자는 방송국에서 기자활동을 했다. 처음에는 방송국 생활을 3년동안 하려고 했으나 우연히 정임후보자에게 부임후보 제의를 받았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 일반 학우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던 나에게 언론에서 대변하는 것 이외에 내가 직접 학우들과 소통하고 싶어 출마를 선택했다.”  
▶‘소공녀’ 슬로건의 의미.  
“소공녀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여학우들’과 ‘소중한 공간의 여가’로 두가지 의미가 있다. 기존의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존재했다. 우리는 여학우들이 어느 정도 권익이 보장됐으므로 좀 더 여학우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목적으로 첫 번째 의미를 뒀다. 또 소공녀는 일반 아라라면 누구나 총여학생회에 늘려와 편안

히 쉬었다가면 해서 두 번째 의미를 뒀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우선 대운동장 벽화 사업은 이어받을 것이다. 다섯 개 단과대학이 아닌 열두 개 단과대학 모두가 참여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미를 확고히 하겠다. 여자부터 총여학생회는 현재 삼분의 일까지 벽화사업을 진행했는데, 소공녀가 진행을 마무리하겠다.”  
▶총여학생회가 꼭 필요한가.  
“총여학생회는 80년대 차별을 받았던 여학생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창립했다. 그러나 요즘 여성의 차별이 사라지면서 SNS에 총여학생회 존폐에 대한 내용이 많이 게시된다. 총여학생회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평등을 말해줄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한다. 소공녀는 양성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성립하기 위한 기구로 거듭날 것이다.”  
▶부임후보자는 학생회 약력이 없는데.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아 항상 정책토론회를 참석하고 선거활동을 분석했다. 일반 아라들이 소통을 하려면 학내 언론의 힘을 빌려야 한다. 작은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대변해주고 싶다. 방송국 출신이기에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학생 수면실 개방에 대해 말이 많다.  
“현재 여학생 수면실은 오후 11시까지 개

방을 하고 있다. 소공녀는 24시간 개방을 약속했으나 많은 여학생들이 안전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소공녀, female(여성)의 첫 글자를 따서 붙인다면 female(여)가 된다. 그 입구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여학우, 남학우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학우들이 약간 자치기구들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부담감지 말고 친근하게 소공녀를 방문했으면 좋겠다. 불만이 있거나 바라는 점을 말해준다면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겠다. 소통과 편안함을 중시하는 소공녀가 되겠다.” 백승규 기자

| 주요공약                |
|---------------------|
| ▶레드파라솔데이            |
| ▶우먼스데이              |
| ▶킥퍼스 헬퍼             |
| ▶제대로 걸어요            |
| ▶대운동장 벽화 봉사         |
| ▶총여학생회의 파우더룸에 커튼달리기 |
| ▶시험기간 간식을 색다르게      |
| ▶기존사업유지             |

» **동아리연합회 입후보자 인터뷰 - 함박웃음** 선거운동본부

## 학내언론과 연계해 동아리홍보 강화 관례와의 상충 막기 위한 회칙개정

▶출마 동기.  
“정임후보자와 부임후보자 둘 다 동아리 회장단을 역임했고, 올해는 각각 동아리연합회 사무국장과 관리국장을 역임했다. 이런 경험이 동아리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더욱 발전하는 동아리연합회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출마를 결심했다.”  
▶어떤 동아리 연합회를 만들고 싶은가.  
“‘함박웃음’은 ‘함께 박수치며 웃음짓는 그날까지’라는 뜻을 내포한다. 모든 동아리가 함께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동아리연합회가 되는 것이 목표다.”  
▶대외적 활동과 홍보강화.  
“매년 1학기 초가 되면 각 동아리들이 2주간 홍보기간을 두고 신입회원 모집한다. 하지만 홍보부스가 철수된 이후엔 동아리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안타까웠다. 우리 함박웃음 선거운동본부는 홍보기간이 지나도 학생회관 1층 로비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 따로 제작한 동아리 홍보 영상을 상영하겠다. 또 학내 언론기구와 연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  
▶대동풍이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동아리인들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아닌 일반 학우들 또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또한

타 대학의 동아리도 초청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대적 회칙 개정을 공약으로 걸었는데.  
“현재 회칙과 관례가 서로 상충될 때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동아리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당선이 된다면 심의의결기구인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각 동아리 회장들과 회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아리 분과 간담회에 대해 설명해 달라.  
“분과장이라는 것은 봉사분과, 종교분과 등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끼리 묶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분과장들은 서로 동아리회장들의 불만을 듣고 동아리연합회에 전달한다. 그러나 각 동아리 회장들이 말하는 내용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는 분과 간담회를 시행해 한학기에 한번씩 분과장들과 각동아리 회장들의 커뮤니케이션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기타 공약은.  
“우선 관리기 반납함 설치와 동아리연합회 모바일 앱 제작을 추진해 동아리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학생회관 화장실 동아리 벽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 또한 당.신.의 동아리 연합회의 정책사항인 시험기간 간식 배부,

프린터 사용시간 연장 등의 기존사업을 유지해 동아리 회원들의 혜택을 위해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주변에서 ‘동아리가 예전보다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비가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을 겪은 후 더욱 견고해지고 돈독해진 동아리인들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를 믿고 선택해 주신다면 항상 여러분 옆에서 든든하고 친근한 동아리연합회가 되겠다. 또한 동아리인들이 편하고 웃음 지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해건 기자

| 주요공약                |
|---------------------|
| ▶동아리연합회 모바일 앱 제작    |
| ▶시험기간 간식배부          |
| ▶프린터 및 복사기 이용 연장    |
| ▶동아리연합회 대동풍이 개최     |
| ▶동아리 운영 가이드북 제작     |
| ▶시설 이용기 반납함 설치      |
| ▶동아리 분과 간담회 시행      |
| ▶대대적인 회칙 개정 추진      |
| ▶학생회관 화장실 동아리 벽보 설치 |